



“모교·동창회·재학생 삼위일체 돼야”

제25대 회장단
첫 상견례 성황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5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5대 회장단 상견례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모교 발전공로상 시상

지난 5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제7회 발전공로상 수여식이 열렸다. 좌로부터 任廷基기획부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徐廷和회장, 愼昌宰동문, 孫泳爽씨, 吳然天총장, 朴永姬동문, 朴枝香중앙도서관장, 李俊植연구부총장, 文輝昌국제대학원장, 姜大熙의대 학장 <관련기사 18면>

관악출추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아시아 17개국 4백91개 대학을 평가한 ‘201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모교가 3년 연속 4위에 랭크됐다. 2위로 평가된 KAIST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체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베이징대(8위), 도쿄대(10위), 칭화대(14위)를 제치고 3년 연속으로 4위로 평가된 것이다.

매년 4개 영역 9개 지표로, 아시아 지역 대학들을 평가한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모교는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순위에선 여전히 국내 1위다. 그러나 ‘교원당 논문’과 ‘논문 피인용수’,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교원당 학생 수’는 앞서지 못했다. 특히 취약한 부분이 국제화 영역으로 ‘외국인 교원 비율’과 ‘해외로 나간 교환 학생’ 지표가 떨어졌다.

‘법인화 후 오히려 뒷걸음...충격의 서울대’ 제하의 분석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서 “서울대가 국내 1위에서 밀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약을 해야 할 때 오히려 뒷걸음질했다는 게 문제”, “국제 경쟁력을 기르겠다며 정부 통제를 벗어나 법인화한 이후 순위가 정체됐다”는 점과 “법인화 만능론을 근거 없이 낙관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분석하면서 모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병폐

글로벌 서울대를 만들자

로 ‘관료주의’와 ‘순혈주의’를 꼽았다.

6월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정관에 따라 처음으로 이사회에서 총장이 선출된다. 총장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선출되는 새 총장은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CEO로 대학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영자이다. 법인화의 요체는 자율과 경쟁이다. 그리고 풍부한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 연구, 교

육, 행정 모든 부문에서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되려면 경쟁원리가 작동돼야 한다. 일례로, 학문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연봉이 깎이고 퇴출되는 홍콩대의 경쟁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창회는 학교 발전을 위한 훌륭한 파트너다. 2009년에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겠다’는 학교 발전 목표로 3천5백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한 ‘VISION 2025 캠페인’은 학교와 동창회 파트너십의 모범적인 사례다. 학교운영에 동창회의 조언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멤버에 동창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동창회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2010년 QS 세계대학순위 50위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해 2013년 세계 35위 대학으로 부상한 모교가 2025년에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하려면 지금이 중요하다. 신임 총장의 경영자적 리더십과 완벽한 법인화로 전환, 새 총동창회장의 열정과 동문들의 지원, 교수와 학생들의 빛나는 연구 성과와 알찬 교육 내용이 어우러진 글로벌 서울대를 만들자. (安國正 前SBS 사장·본보 논설위원)

나무광장

#1. 세월호 참사 직후 ‘손석희’라는 글자가 인터넷 검색어 1위에 올라왔다. 孫石熙앵커가 자신들의 방송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는 내용. 며칠 뒤 孫石熙앵커는 팽목항에서 진행 도중 눈물까지 흘렸고 그 덕분(?)인지 그가 진행하는 방송 뉴스는 시청률이 급상승했다.

#2. 2010년 우리 해군장병 40여 명이 숨진 천안함 침몰 사건. SBS 김소원 앵커는 숨진 장병의 사연을 담은 앵커멘트를 읽지 못하고 눈물을 참았고 ‘김소원 눈물’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유치원생 20여 명이 숨졌던 씨랜드 참사는 피지도 못한 우리 자녀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슬픔이 큰 것 같다. 어머니들 모임에 나가면 “기자들은 현장에서 훨씬 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직접 느끼게 될 텐데 보도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월호 취재 때문에 계속 미뤄졌던 사회부 여기자들과

저녁 자리를 최근 가졌다. 뒷얘기가 쏟아져 나왔다.

“선배, 리포트하면서 울고, 편집하면서 또 울고 그 래요.”

“현장에 계속 있는 수습 기자들은 같이 울다가 유가족들과 한 몸처럼 돼 버렸어요.”

그동안 뉴스를 모니터하면서 나는 우리 어린 후배들이 대견스럽게도 ‘답답한’ 오디오로, 울음을 참아가며 리포트를 한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그랬다. 생중계 카메라가 돌아가면 눈물을 평평 쏟고, 편집을 끝내면 또 눈물을 쏟고. 인간힘을 다해 방송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를 썼

눈물을 딛고 성숙된 사회로

洪智英
SBS 미래부 차장
본보 논설위원



지만 방송이 끝나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언론은 오보와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늘 보이지 않는 많은 기자들의 진심이 존재하고 있다. 비록 앵커들의 눈물처럼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젊은 기자들의 고뇌와 눈물은 우리를 더 나은 사회로 이끄는 나침반들 가운데 하나다.

젊은 기자들만 고뇌하는 건 아니다. 언론도 늘 한국사회가 나갈 방향과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필자가 일하고 있는 부서도 그런 일을 한다. 이름은 생경하게도 미래부. SBS에만 있는 독특한 부서다. 월단위로, 분기 단위로 뉴스 흐름을 정리하면서 연말에는 포럼을 통해 올 한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정리하고 내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획하고 방송프로그램과 뉴스로 제시하는 일을 한다.

한국 사회 전체를 우울과 슬픔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고민해온 기획방향을 명료하게 만들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팀에서 연구해온 ‘삶의 질’과 관련된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때가 된 것이다. 목표를 위해 과정과 수단은 적당히 무시해도 용납됐던 우리 사회. 이제는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근본적인 삶의 질을 높여 더 이상 억울한 희생과 눈물을 만들지 않을지 다 같이 생각해볼 시점이다.

관악시단

평범함애

金文子(농가정63-67)시인

끊임없이 도전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볼 때면
놀라운 정신에 감복하다가
그래,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지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붙여보다가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지내도, 위안을 삼다가
하 세월에, 자괴감에 젖다가
억지로 껴맞추는, 평범함이 중용(中庸)이야
중용(中庸)이 좋은 거지, 스스로 최면을 걸다가
아름다운 음악에
그렇그럼 눈물 맺히는...

동문칼럼

2012년 9월부터 총동창회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온 교수 강의 동영상 사업은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진행돼 오고 있다. 2012년에는 현대철학사조와 같은 인문사회의 기본 과목에서부터 형사소송법, 환경과 건강과 같이 응용분야의 과목을 포함해 13개 과목이 개발됐으며, 2013년에는 경제통계학, 건축사, 사람 뇌의 구조와 기능을 포함해 모두 9개 강좌가 개발됐다. 2년에 걸쳐 개발된 22개의 강좌는 SNUON을 통해서 교내외에 제공되고 있다. 특히 SNUON 모바일 앱을 이용한 강좌 제공 실적을 보면 누적 다운로드 수가 올해 5월초까지 모두 7만6천 건을 넘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MIT, 하버드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인 에덱스(edX)에 로봇공학개론, 물리의 기본, 한반도의 국제정치 3개 과목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 중 영어로 강의하는 공대 朴鍾寅교수의 로봇공학개론은 현재 수강인원이 1만3천명을 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평생교육원의 SNUi 사이트를 통해 동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다.



洪起玄
(경제76-80)
모교 경제학부 교수
모교 교무처장

주고 있다.

나아가 동영상 강의는 단순히 강의 전달 수단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소위 역전학습(flipped learning)이라는 강의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은 준비된 동영상상을 미리 학습하고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강의에서는 토론과 문제풀이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동영상 사업에 참여한 교수들 중 많은 분들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강의를 학생참여형으로 바꾸고 있으며,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좋은 강의들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다. 사회적 책무의 하나로서 모교가 추구하는 지식 나눔에서 총동창회 지원 사업은 모범적인 사례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단순히 사회봉사 차원을 넘어서 필요한 경우 이수증 발급과 학점부여를 통해 일종의 수익사업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명품강좌 등 동영상상을 이미 개발해온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이번에 동창회의 지원으로 사업 규모를 크게 하면서 몇 가지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즉 지식 나눔과 같은 대규모 확산을 위해서는 가급적 질이 좋고 시설과 인력을 많이 들여서 현장중계방식에 가까운 고품질 동영상상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정규 강의의

교수 강의 동영상 사업의 의의와 과제

총동창회 많은 분들의 귀중한 기여를 통해 마련된 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이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사업의 작은 기대의 하나는 정규 과목의 강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전달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영상 강의 준비를 위해 참여하는 교수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강의 자료들은 학생들에게 예습과 복습의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강의 전체가 공개되기 때문에 강의 선택에도 큰 도움을

혁신을 위해서는 고정식 카메라를 이용하되 일부 촬영을 더하는 중간 정도 질의 동영상도 가능하며, 예·복습용으로 기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강의자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저비용 방식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방식을 가진 동영상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총동창회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龍,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侁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瑒,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埭



본회 徐廷和회장은 “서울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힘을 합쳐 어떻게 국가와 사회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새 회장단 상건례... “서울大人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李俊行·金宗鎬·朱成民동문에 감사패 수여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5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5대 회장단 상건례를 개최했다.

徐廷和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총동창회는 林光洙전임 회장님의 리더십과 여러 임원들의 크나큰 도움과 기부금으로 장학빌딩 건립, 개교 원년 찾기 등의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기초로 동문들의 유대 강화와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대해 헌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모교와 동창회는 일체화돼야 한다”며 “재학생과 함께 삼위일체의 힘이 기하급수적인 발전력이 돼 이상 사회로 나아가 소망의 통일국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근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세계사적인 지각변동의 조짐이 심상치 않은 중대한 변화기에 우리 서울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힘을 합쳐 어떻게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총동창회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林光洙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이어서 徐廷和회장님께서 서울대총동창회의 역량과 권위, 그리고 존엄을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며 “徐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회장단은 지금까지 동문이 이룩한 성과 그 이상의 경이적인 성과를 높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또 “저는 총장에서 물러나더라도 평교수로서, 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동창회의 역할에 멀리서나마 큰 성원을 보내고 미력한 힘이나마 음지에서 동문 여러분의 일을 거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徐廷和회장은 지난 제24대 임원으로 활동하며 동창회에 기여한 李俊行(섬유공학48-54)·金宗鎬(행정55-59)前 부회장과 朱成民(법학69-73)前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만찬 중에 林光洙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총동창회를 이끌어 가실 제25대 회장단 여러분을 뵙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동창회장에 취임한 후 회장직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동문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12년 총동창회가 모교와 70억원의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작년부터 시작한 교수 강의 동영상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이 쇄도해 모교의 수월성 교육을 크게 높이고 있는 등 총동창회가 지원·추진하고 있는 장학지원사업의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李吉女부회장은 徐廷和회장의 동창

회장 취임 축하인사와 함께 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한 뒤 “徐회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창회도 잘 이끌어 주시리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여기 계신 분들 또한 회장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에는 동창회 權彞赫·白文基·趙弼濟고문, 林光洙명예회장, 徐廷和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朴熙伯·李海遠·成百詮·李世中·孔大植·郭永駟·金讚淑·鄭世煜·姜寅求·李炯均·黃彩皓·金明子·朴容眩·金一燮·辛鉉雄·吳明·邊榮進·文昌克·姜大鉉·金英豪·鄭八道부회장, 尹勤煥·琴震鎬 前부회장, 李相赫·朴英俊감사, 朱成民 前감사 등이 참석했다.

모교에서는 吳然天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吳秉熙병원장, 朴贊郁사회대학장, 朴賢愛간호대학장과 관악대상 운영위원인 모교 법학부 胡文赫명예교수, 李政宰교수협 의회장, 鄭根植명예원회 의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에서는 李禮植·韓斗鎭·曹基浩·權永吳·金炯周·金秉順이사 등이 자리했으며, 상임이사인 李賢秀농생대동창회장, 劉仁洙미대동창회장, 崔明珍생화대동창회장, 李文漢수의대동창회장, 李在述경대원동창회장, 裴吉漢보대원동창회장, 李完永한대원동창회장, 朴英淑 CHCN동창회장, 李世漢 AIC동창회장, 文正旭 AFB동창회장, 朴恩熙 AMPFRI동창회장, 崔巨勳 ASP동창회장, 李一鎬 KFL동창회장, 崔順泰 FNP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본보 金哲洙·金鎮銅·丘月煥·李五峰·李成俊·李慶衡·徐玉植·朴時龍·尹在錫·朴聖姬·曹炳喆·金鎮國·姜孝祥·金光德·鄭星姬·鄭在權·申然琇는설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趙弼濟고문



閔庚甲부회장



孫炳斗부회장



金一燮부회장



金東建부회장



姜大鉉부회장

본회 고문·부회장 추가 선임

지난 호(제434호) 3~5면 본회 제25대 임원진 명단 소개 후, 추가로 선임된 임원진을 이번 호에 소개한다.

본회는 고문에 趙弼濟(조선항공공학46-50)세양주책 회장을 새로 위촉했다. 또 부회장에 閔庚甲(회화53-57)단국대

석좌교수, 孫炳斗(경제60-64)호암재단 이사장, 金一燮(경영64-69)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金東建(법학65-69)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姜大鉉(서양사학72-76)국제교류증진협회 회장 등 5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제159차 상임이사회·제119차 관악회 이사회

이사 선임·재산관리위 신설키로

본회는 지난 5월 23일 서울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59차 상임이사회 및 제119차 관악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徐廷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관악회 임원들께서 모교를 위한 많은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신 데 대해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연간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20여 억원의 장학금 및 12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

등의 성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추진 현황, ‘2014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에 대한 모교측 실무자와 대책 협의, 동문 관리 회원을 10만명 배가하는 방안, 중국지부동창회 창립 등 동창회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관악회 이사회에선 임원 선임과 정

관 개정안이 상정됐다. 임기가 만료된 金一燮감사의 후임으로 이상혁법률사무소 李相赫(행정54-58)변호사를 선임했으며, 趙弼濟이사를 대신해 대한병원협회 韓斗鎭(의학50-56)명예회장을 이사에 선임했다. 한편 金秉順이사는 연임됐다.

또 정관 개정을 통해 제7조 재산 관리규정에서 ‘이 법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자문기구로서 재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이사회에선 회비 인상 및 회보 구독료 징수 의견이 나와 감사와 집행부에 위임,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香)

서울대인 총 78명 당선

광역단체장 10명·교육감 5명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41명

광역의원 8명·기초의원 14명

〔 사진은 입학년도순으로 게재했으며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은 지면관계로 사진을 실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李始鍾충북도지사



李洛淵전남도지사



金起炫울산시장



元喜龍제주도지사



宋河珍전북도지사



崔文洵강원도지사



李春熙세종시장



劉正福인천시장



朴元淳서울시장



權善宅대전시장



金錫俊부산시교육감



曹喜昞서울시교육감



張萬彩전남도교육감



李在禎경기도교육감



崔敎振세종시교육감

지난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총 78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朴元淳(SGS 9기 새정치민주연합)現서울시장, 인천시장에 劉正福(행대원86-88 새누리당) 前안행정부 장관, 대전시장에 權善宅 (SPARC 6기 새정치민주연합) 前국회의원, 울산시장에 金起炫(법학78-82 새누리당) 前국회의원, 세종시장에 李春熙(행대원79-85 새정치민주연합) 前건설교통부 차관, 강원도지사 崔文洵(대학원84졸 새정치민주연합) 現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李始鍾(정치67-71 새정치민주연합) 現충북도지사, 전북도지사 宋河珍(행대원81졸 새정치민주연합) 前전주시장, 전남도지사 李洛淵(법학70-74 새정치민주연합) 前국회의원, 제주도지사 元喜龍(공법82-89 새누리당) 前국회의원 등 동문 10명이 당선됐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에 曹喜昞(사회75-80)성공회대 교수, 부산시교육감에 金錫俊(사회75-79)부산대 교수, 세종시교육감에 崔敎振(AMP 62기)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경기도교육감에 李在禎(대학원72입)성공회대 석좌교수, 전라남도교육감에 張萬彩(화학80졸) 前순천대 총장 등 5명이 승자가 됐다.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백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가운데 41명이 서울대인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의원 의원(비례대표 포함) 7백89명 가운데 동문 8명이 당선됐다. 또 기초의회 의원(비례대표 포함) 2천8백98명 중 14명이 동문으로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선 거 구		성 명	출 신 대 학	전 직	정당
광 역 단체장	서울특별시		朴 元 淳	SGS 9기	서울시장	민
	인천광역시		劉 正 福	행대원86－88	前안전행정부 장관	새
	대전광역시		權 善 宅	SPARC 6기	前국회의원	민
	울산광역시		金 起 炫	법학78－82	前국회의원	새
	세종특별자치시		李 春 熙	행대원79－85	前건설교통부 차관	민
	강원도		崔 文 洵	대학원84졸	강원도지사	민
	충청북도		李 始 鍾	정치67－71	충청북도지사	민
	전라북도		宋 河 珍	행대원81졸	前전주시장	민
	전라남도		李 洛 淵	법학70－74	前국회의원	민
제주도		元 喜 龍	공법82－89	前국회의원	새	
기 초 단체장	서 울	중 구	崔 昌 植	환대원82－84	중구청장	새
		광진구	金 基 同	지리65－69	광진구청장	민
		동대문구	柳 德 烈	SGS 7기	동대문구청장	민
		관악구	柳 鍾 珣	철학78－85	관악구청장	민
		서초구	趙 恩 禧	대학원84－87	前서울시 정무부시장	새
		강남구	申 燕 姬	ACAD 59기	강남구청장	새
		강동구	李 海 植	SGS 23기	강동구청장	민
	부 산	영도구	魚 允 泰	AMP 55기	영도구청장	새
		기장군	吳 奎 錫	SGS 3기	기장군수	무
		사하구	李 京 勳	행대원76－79	사하구청장	새
		강서구	盧 基 太	AMP 27기	前부산시 부시장	새
	대 구	달서구	郭 大 勳	행대원78－82	달서구청장	새
	인 천	남 구	朴 祐 燮	미생물72－94	남구청장	민
	광 주	동 구	盧 熙 鏞	경영82－86	동구청장	민
	경 기	수원시	廉 泰 英	농화학80－84	수원시장	민
		안양시	李 弼 雲	SPARC 16기	前안양시장	새
		광명시	梁 基 大	지리교육81－88	광명시장	민
		안산시	諸 滄 吉	대학원88－93	前국회의원	민
		고양시	崔 星	AIC 11기	고양시장	민
		과천시	申 桂 容	사회복지82－86	前경기도의회 의원	새
		의왕시	金 成 濟	행대원90－93	의왕시장	민
		남양주시	李 錫 雨	SPARC 23기	남양주시장	새
		오산시	郭 相 旭	AIP 30기	오산시장	민
		시흥시	金 允 植	SGS 4기	시흥시장	민
	충 북	청주시	李 承 勳	인류74－78	前충북 정무부지사	새
	충 남	공주시	吳 施 德	AIP 17기	前국회의원	새
		태안군	韓 相 麒	AIC 5기	前충남 자치행정국장	새
	전 북	군산시	文 東 信	ACAD 55기	군산시장	민
		김제시	李 建 植	ACAD 29기	김제시장	무
		완주군	朴 成 一	행대원86졸	前전북 행정부지사	무
	전 남	여수시	朱 哲 鉉	AIP 36기	前대검 강력부장	민
		진도군	李 東 鎭	법학64－72	진도군수	민

	선 거 구		성 명	출 신 대 학	전 직	정당
기 초 단체장	경 북	포항시	李 康 德	ACAD 75기	前해양경찰청장	새
		구미시	南 洵 鎭	종교72-76	구미시장	새
		문경시	高 潤 煥	행대원84-86	문경시장	새
		의성군	金 周 秀	AMP 69기	前농림부 차관	새
		청송군	韓 東 洙	ACAD 73기	청송군수	무
	경 남	창원시	安 商 守	법학64-68	前국회의원	새
		진주시	李 昌 熙	행대원82-87	진주시장	새
		밀양시	朴 一 浩	행대원91-95	前김&장법을 고문	새
광 역 의 원	서 울	(성북구)	金 求 鉉	정치81-85	모교 사회과학원 연구원	민
		(서초구)	金 勇 錫	동양사학86-92	서울시의회 의원	새
		(비례대표)	禹 昌 允	건축83-87	오크힐스 광주요양원 대표	민
	대 구	(달서구)	金 元 九	경영78-82	대구시의회 의원	새
		(달성군)	崔 栽 熏	사회복지00-10	재훈장학회 이사	새
	인 천	(동 구)	黃 仁 成	ACAD 51기	황인의원 원장	새
	경 북	(경주시)	李 鎭 洛	전기공학81-85	경주시의회 의원	새
	경 남	(진주시)	姜 旻 局	ACAD 72기	前경남도지사 비서실장	새
			종로구	朴 魯 燮	AMPFRI 5기	종로구의회 의원
기 초 의 원	서 울	금천구	鄭 晁 梓	SGS 5기	금천구의회 의원	새
		서초구(비례)	崔 美 英	HPM 29기	서초구약사회 회장	새
		송파구	朴 宰 賢	임산가공82-88	송파구의회 의원	민
		강동구	趙 龍 九	대학원91-93	前강동구의회 의원	새
		성남시	權 樂 容	대학원10-12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	민
	경 기	의정부시	張 秀 鳳	사회교육78-82	前삼성카드 강남지역단장	민
		부천시	朴 炳 權	AMPFRI 28기	삿뽀로 일식 대표	민
			尹 炳 國	사회복지82-89	부천시의회 의원	무
		동두천시	蘇 元 榮	AFB 13기	경남섬유 대표	새
		고양시	朴 相 俊	정치98-02	前국회의원 비서관	새
		용인시	李 濟 男	ACAD 73기	용인서울병원 이사장	민
			金 鮮 熹	기약81-85	용인시의회 의원	새
	경남	양산시	韓 玉 文	AIP 45기	양산시의회 의원	새

선 거 구		성 명	출 신 대 학	전 직
교 육 감	서울특별시	曹 喜 昞	사회75-80	성공회대 교수
	부산광역시	金 錫 俊	사회75-79	부산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崔 敎 振	AMP 62기	한국교육복지포럼 공동대표
	경기도	李 在 禎	대학원72입	성공회대 석좌교수
	전라남도	張 萬 彩	화학80졸	前순천대 총장

▲AMP(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 AIP(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ACAD(행대원 국가정책과정), SGS(환대원 도시환경교위정책과정), HPM(보대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AIC(행대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AFB(생활대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AMPFRI(보대원 식품외식 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 SPARC(자연대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

▲새누리당(새)·새정치민주연합(민)·무소속(무)



徐廷和회장과 일본총동창회 尹仁虎회장 (左)이 동창회기를 주고받고 있다.



일본동창회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權鎔大·吳英元·金富鉉·尹仁虎·徐廷和·李丙琪·陳東煥·梁寬洙·朴明盛등문

동경·오사카 하나가 됐다 일본동창회 尹仁虎회장 선출

동경지부동창회(회장 尹仁虎)와 오사카지부동창회(회장 金一男)는 지난 6월 4일 일본 동경 파크사이드호텔에서 본회 徐廷和회장, 孔大植부회장 그리고 李丙琪주일한국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해 동경, 오사카, 규슈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총동창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동경지부동창회 尹仁虎(기계공학67-71)회장을 선출했다. 향후 일본총동창회는 동경지부와 오사카지부가 번갈아 가며 일본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된다.

동경이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尹仁虎회장은 취임사에서 “40여 년 전부터 각 단과대학 및 지역별로 동창회 활동을 해오다 동경지부와 오사카지부가 협력해 오늘의 일본총동창회 설립에 이르렀다”며 “이를 계기로 총동창회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동문들의 친목이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모교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와 재학생, 총동창회

의 삼위일체된 힘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어 세계지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울대 일본총동창회의 명칭과 조직을 격상할 것과 권한을 전권 위임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제 일본총동창회는 독자적 조직과 인적 구성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훌륭한 지도부를 구성해 전 세계의 동문들과 민족·국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의 명운에 영향을 미치는 열강들과 외교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세계인으로서의 한국인 위상을 세우는 데 주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丙琪대사는 “일본총동창회가 남에게 배타적인 우리끼리의 학연이 아니라 비록 배고프고 남루했지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

했던 젊은 날의 열기와 충정을 되살려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총동창회 회의에 앞서 열린 동경지부 총회에서 일본교류협회 權鎔大(사학66-71)사무국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본회에서는 모교 배지를 회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동경대(문서관)·와세다대(대학사자료센터) 방문



동경대 문서관

徐廷和회장은 일본총동창회 창립총회 다음날인 6월 5일 동경대와 와세다대를 방문해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문을 구했다.

오전 10시 동경대를 방문한徐회장은 동경대총동창회 간자와(神澤俊介)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동경대



와세다대 대학사자료센터

1백50년사 편찬을 준비 중인 사토(佐藤慎一)문서관장, 종합연구박물관 니시노(西野嘉章)관장, 동경대문서관 모리모토(森本祥子)교수 등을 만나 역사연구기록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경대 관계자들은徐회장의 과거 동경대 교환교수 시절 이야기를 듣고 큰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오후에 방문한 와세다대에서는 李鍾元(금속공학72입)·朴相俊(경제84-88)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대학사자료센터를 자세히 돌아봤다. 와세다대 대학사자료센터에서는 오비나타(大日方純夫)소장, 이노우에(井上裕一)사무장 등의 관계자가 나와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에 대해 조언했다. 〈南〉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올해 동영상 50개 강좌 개발 목표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5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예뻐아름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前총장과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해 전주대 高健前총장, 한동대 崔道成부총장, 모교 평의원회 鄭根植의장, 李在影학생처장, 林哲一교육부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辛鉉雄·孔大植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지난 4월 완료된 모교 교수 강의 동영상 제작 2차년도(2013년도) 사업의 운영 성과와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한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3차년도(2014년도) 사업의 강좌 선정 및 개발,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2차년도 동영상 강좌 개발 사업은 4억3백만원의 비용을 집행해 총 9개 강좌 개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총 22개 강좌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참석자들은 3차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교수가 동영상 강의에 참여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본래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내년 4월까지 50개 강좌를 개발한다는 목표로 10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촬영한 강의 전체를 학내외에 공개했던 기존의 공개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참여 교수들이 학내외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해외대학 강의 자막 제작

한편 지난 5월 28일 열린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자문위

원 6차 회의에서 자막제작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모교 교수 강의 동영상 제작과 동시에 모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 중인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자막제작 사업은 현재 1단계 예일대 등 4개의 대학 인문·경제 관련 강의 동영상에 국·영문 자막 제작이 완료돼 일반에게 공개 중이며, 2단계 사업으로 학생 공모를 통해 수렴한 10여 개 강좌에 자막을 넣

을 계획이다. 모든 강좌는 일회성 특강이 아닌 10~15시간 소요된 완결된 강의로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강의 중 저작권이 해결된 것들이다. 자막 제작은 선발된 학생들을 통해 이뤄지며, 이들에게는 장학금이 지원된다.

李基俊위원장은 “자막 제작 시 번역한 학생의 이름을 표시해 책임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타 대학이나 기관에 자막이 제공된 해외대학 유명 강의 동영상에 있다면 그 경로를 소개해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辛鉉雄부회장은 “질적인 면과 함께 양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강의 영상에 자막만 입히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강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秀〉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19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5월 1~31일 6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13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19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李昌浩(기계공학55-61) 동문: 공과대학 2학년 방명록(1955년) ▲金宣圭(행정55-61) 동문: 개교 10주년 기념엽서 8종 ▲洪鍾震(농공학57-64) 동문: ‘試驗問題集’, ‘農業工學’, ‘알기 쉬운 開墾法’, ‘哲學概說’, ‘水理學’ 등 총 5권 <사진> ▲吳晷烈(전문기상58-65) 동문: 성적증명서 2매, 경력증명서 1매, 졸업증서, 노트 3권 ▲宋征衛(경제60-66) 동문: 버클, 교표, 학생증, 배지, 앨범, 졸업식순(1966년) 등 ▲崔相範 시설지원과 직원: 행사포스터 모음집 2권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 박물관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2319-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故 李爽熙동문 부인, 故 卞榮晩동문 손자, 辛永茂·金慶漢동문

金東建회장 선출·법대인 시상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5월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22회 자랑스러운 법대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법무법인 바른 金東建(법학65-69)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

출했으며, 올해 조직강화, 장학사업, 모교와 유대강화를 위해 3억8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제22회 ‘자랑스러운 법대인’으로 선정된 故 卞榮晩(법관양성소 1905졸)前광주지법 판사, 故 李爽熙(법학51-55)前동창회장, 金慶漢(법학62-66)前법무부 장관에게패를 수여했다. 또 傘壽와 古稀를 맞이한 12회, 22회 동문들에게 추수패를 증정했다.



120년 역사전시실 개관

한편 법대동창회는 정기총회에 앞서 지난 5월 20일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법대 120년 역사전시실 개관식을 개최했다.

백주년기념관 3층 동창회 기념홀에 마련된 역사전시실은 LED 광관, 북타워, 전자책 등 첨단 기기를 활용, 법대 1백20년사를 한 눈에 들어오게 꾸몄다. 조성비용으로 3억5천여 만원이 소요됐다. SBS 尹世榮회장이 비용 절반을 쾌척하고 나머지는 동창회, 모교, 동문들의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본회에서도 3천만원을 지원했다.

개관식 전에 도착해 전시관을 찬찬히 둘러본 본회 徐廷和회장은

“총동창회가 모교 역사연구기록관을 지으려 하고 있는데 법대 역사전시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 전시관이 모교를 되돌아보고, 더 가까이 호흡하고, 교감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것이며 후배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 의는 세우라’는 법대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신념공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전시실의 자료 수집부터 공간 배치까지 실무를 지휘한 李相赫관리부위원장은 법관양성소 입학시험 광고, 경성법전 4회 졸업기념 사진, 경성법전 14회 한국인 졸업생들의 좌우명을 쓴 모듬글씨 등 사진 자료를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南>

제11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13일 오전 9시30분 모교 농생대 제3식당

- ◆일시 : 2014년 7월 13일(일) 09:30~17:00
- ◆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75-1동)
- ◆참가대상 :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단, 아마 7급 이상)
- ◆진행 : ①단체전 :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 : 棋力別 64명 이내
※총 호선(팀 6점반 공제), 변형스위스 리그
- ◆신청 : 2014년 6월 27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c.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c.kr로 신청
- ◆참가비 : 없음(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 2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 ◆오시는 방법
- 승용차 :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본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오른쪽 농생대 건물 주변에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5513번을 타고 관악캠퍼스 내 농생대 건물에 하차
- ◆문의사항 :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李鶴來·李賢秀·李得龍·夫庚生동문, 崔昌祐동문 아들, 李丙勳·徐炳倫·具滋玉동문

80학번 주관 ‘상록의 날’ 성황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李賢秀)는 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3백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80학번 동기회(대표 金英瑞)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제 12회 상록인 대상 시상식, 80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 축하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 후 이어진 상록인 대상 시상식에서 경기특수산업 李得龍(농

경제52-56)대표, 모교 夫庚生(농생물60-64) 명예교수, 라벨리 崔昌祐(농화학60-64)대표, 李丙勳(임학64-68)PD, 한국파렛트폴 徐炳倫(농공학69-73)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드라마 ‘대장금’ 등을 연출한 李丙勳 동문은 이날 ‘나의 드라마와 한류’란 제목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또 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수원에충 金勳東(농학63-69)회장, 파워김중장비 李舜衡(농공학70-74)대표, 일문정보 黃運起(측산79-85)부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權大泳(식품공학77-81)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80학번 졸업 30주년 기념사은회에서는 지난 시절을 회고하는 동영상 상영과 함께 스승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80학번 동기 95명은 무대에 올라 ‘스승의 은혜’를 열창하기도 했다. 동기회는 이날 2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4천여 만원의 행사비용을 찬조했다. 李舜衡 동문도 3천만원의 장학금을 약정해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상대동창회

상대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5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모교 은사들을 초청해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동창회 회장단 및 동기회장들은 모교 趙 淳·邊衡尹·韓義泳·林鍾哲·朴宇熙·鄭英一·郭秀一·鄭基俊·金秀行·李天杓·表鶴



吉명예교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며 감사인사를 올렸다.

成耆鶴회장은 이날 행사를 위해 노스페이스 신발 등 아웃도어 제품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세월호 유족 南壽鉉동문 위로

치대·치대원동창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학생들을 대피시키다 목숨을 잃은 인산 단원고 南윤철(35세) 교사가 지난 4월 20일 그의 고향인 정주에서 이승과의 마지막 작별을 했다.

南교사의 화장식에서 부친 충청대 치위생과 南壽鉉(치의학71-77)교수는 자식과의 마지막 작별에서도 북받치는 슬픔을 꺾꺾 누르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다독였다.

南동문에 이어 미혼인 南교사가 2대 독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그러나 南동문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

고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자랑스롭습니다”라며 초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南동문은 “평소 아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스승으로 남으라고 했는데 그들을 살리다 결국 그렇게 됐다”며 “아들의 성품으로 봤을 때 배에서 자신만 살아 나왔다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南동문의 오랜 친구인 치대동창회 朴健培회장은 “南동문이 부의 금도 일절 받지 않았다”면서 “인품이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1천만원을 모았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南동문이 우리 대신 좋은 곳에 써줄 것으로 믿고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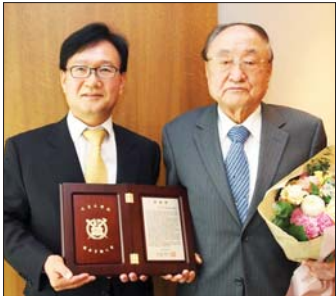
林光洙명예회장에 감사패 전달

관악언론인회

관악언론인회(회장 裴仁俊)는 지난 5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여 명의 동문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林光洙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裴仁俊회장은 “2003년 4월 23일 이곳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악언론인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이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모교 발전을 위한 동창회와 관악언론인회의 협력을 주도해주신 林光洙명예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게 됐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패에는 “12년간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관악언론인회뿐 아니라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서울대 폐지론’,



裴仁俊회장·林光洙명예회장

모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개교 원년 찾기, 온라인강좌 개설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했으며,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장학빌딩을 준공, 이를 토대로 총동창회의 장학 및 연구지원 사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에는 1천여 명, 홈커밍데이에는 6천여 명의 동문이 운집해 서울대인의 단합을 과시할 수 있도록 열성과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동창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林光洙명예회장은 “총동창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했던 많은 일들 중 가장 보람되고 잘한 일의 하나가 바로 관악언론인회의 창립이라고 생각한다”며 “모교와 총동창회의 각종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악언론인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명예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辛鉉雄부회장, 관악언론인회 安秉勳초대 회장, 文昌克 前회장, 裴仁俊회장, 관인회 여기자회 申然琇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邊)

동창회 ‘어플’ 서비스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는 최근 동창회 스마트폰(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제작해 동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축된 어플 서비스는 전자 회원수첩기능을 갖춰 회원명부를 검색한 뒤 사진이나 연락처가 나오면 바로 터치해 전화연결이 가능하며, 게시글 등록 즉시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전체 혹은 그룹별 문자 무료발송도 가능하다.

동문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대의대’를 검색해 위 어플을 설치할 수 있다. 로그인은 의대동창회 홈페이지 ID와 PW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5월 18일 도봉산에서 4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3회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南)

동문작품

지상 전시회

洪貞熹作



Nano, Oil on Canvas, 130×162cm, 2010년

〈작가약력〉

▲1969년 모교 회화과 졸업
▲1979~1980 미국 미시건대 교환교수
▲1967~1981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입선
▲1971년 제20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문화공보부 장관상

▲1996년 제9회 석주미술상
▲신세계미술관(1973년), 현대화랑(1979년), 미국 국제교류처화랑(1981년), LA 한국 문화원(1983년), 런던 로고스갤러리(1997년), 뉴욕 UN갤러리(2002년), 서울대미술관(2014년) 등 개인전 다수
▲現미대동창회 부회장

관악산 등반하며 우의 다져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산에서 2백6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등반대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관

악산 연주대를 등반하며 공대 동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향유했다. 등반을 마친 후 모교 공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대우테크 南正鉉(건축57-61)고문과 일진그룹 許鎭奎(금속공학59-63)회장 등이 협찬했다.



졸업 50주년 맞아 한자리에

사대 60학번 동기회

사범대학 60학번 동기회는 지난 5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94년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 卞柱仙대회장, 俞千根준비위원장, 사대동창회 李揆澤회장, 모교 朴吉俊 명예교수를 비롯해 1백2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鄭玉子동문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참석해 동기들의 박수를 받았다.

동기회는 50주년을 기념해 朴吉俊 명예교수에게 선물을 증정했으며, 모교에 장학금 5백만원과 사

대동창회에 발전기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방송작가 출신의 金光輝동문의 구수한 입담으로 진행된 2부 ‘과별 활동 보고회’에는 각 학과별 대표들이 나와 참석 소감과 동기회 모임 현황을 설명했다. 국어교육과 朴濤濤대표는 4·19 학생운동 당시 경무대 발포사건 목격담을, 독어교육과 河舜鳳대표는 짝사랑 하던 가정교육과 동기를 다시 만나게 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卞柱仙동문이 5백만원, 朴濤濤·李喜鎔·林香淳동문이 각각 1백만원을 찬조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60학번 동기회 전체 4백2명 가운데 국내에 2백51명, 해외에 64명이 거주하며 56명이 작고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교장 50명, 대학총장 및 학장 7명, 모교 교수를 7명 배출했다.

총회서 장학금 수여 공대 여성동창회

공과대학 여성동창회(회장 白恩沃)는 지난 5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朴順子·李榮喜·李信玉 원로 동문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동문회는 이날 ‘SEW(SNU Engineering Woman) 네트워크 펠로십’ 장학생으로 2명의 재학생을 선정해 각각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창회 임원으로 경기대 건축학과 柳典希(건축82-86)교수가 차기 회장인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金旼宣(섬유고분자89-93)실장이 총무, 삼성SDS 趙恩慶(섬유고분자93-97)수석컨설턴트가 회계로 봉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위해 白恩沃회장, 李信玉(건축52-56)·朴河英(산업공학75-79)동문 등이 특별 찬조했다.



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FNP동창회

식품영양산업CEO과정동창회(회장 崔順泰)는 지난 5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공대 운동장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崔順泰회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余禎星학장 등을 비롯해 동문과 동문 가족 1백20여 명이 함께했다.

청 팀 (1기·6기), 백 팀 (2기·5

기), 홍팀(3기·4기)으로 나뉜 동문들은 운동장에 모여 체조로 몸을 풀고 배구와 족구 등의 종목을 겨루며 우의를 다졌다.

이날 대회를 위해 吳永喆(1기)·徐榮澤(2기)명예회장, 崔順泰회장을 비롯해 金榮植수석부회장, 余禎星학장 등 40여 명의 동문이 금품을 협찬했다.

동창회는 9월 등산대회, 10월 골프대회, 11월 조찬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다.

朴鍾逸·金峰權교수 우승 관악교수테니스회

관악교수테니스회(회장 柳根寬)는 지난 4월 2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44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관악교수테니스회는 모교 교수 3백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朴鍾逸(수학82-86)·金峰權(경제86-90)교수, 2위 吳憲錫(국민윤리86-91)·許元琦(미생물87-92)교수, 3위 徐正雙(화학교육71-75)·李孝元(공법83-87)교수, 柳根寬(경제79-83)·石曠宰(미생물81-85)교수

▲B조 : 우승 姜昌律(제약73-77)·김도희 교수, 2위 鄭承喆(국문82-86)·崔鍾根(자원공학84-88)교수, 3위 曹鍾守(잠사66-70)·金賢均(서문84-89)교수, 徐

世源(화학69-73)·玄澤煥(화학83-87)교수

모교서 2백여 동문 단합 축산학과동문회

축산학과동문회(회장 金泰奉)는 지난 5월 10일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가자 다함께’란 슬로건을 내걸고 ‘축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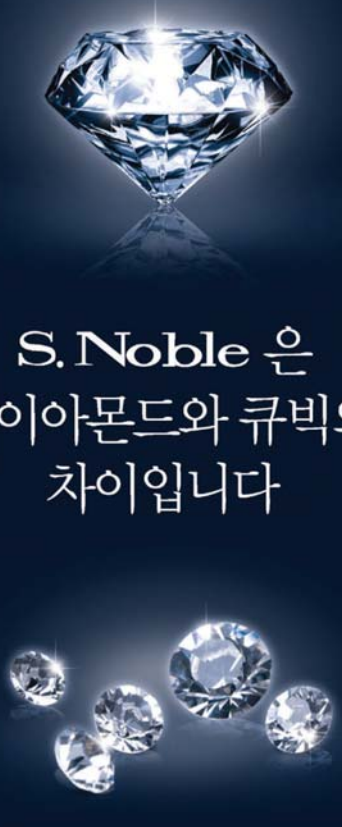
이날 모임에는 53학번 동문부터 재학생까지 2백20여 명이 참석해 캠퍼스 투어, 두레 풍물패 공연 감상, 화합의 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즐겼다.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CTC바이오 成蒼洪(축산82-89)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회장단을 비롯해 카길애그리퓨리나, 이지바이오 등 20여 동문 업체에서 1천8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찬조했다.

축산학과동문회는 2천6백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5월 축산의 날 행사, 12월 송년의 밤을 열고 있다. (南)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고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인해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원본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고객의 상황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 초보 공무원

순진한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동사무소를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왔다.

아주머니 : 사망신고 하러 왔는데요.

초보 공무원 : (처음 대하는 민원인이라 긴장하며) 본인이세요?

아주머니 : 본인이 꼭 봐야 하나요?

• 비상금 숨기는 법

일단 봉투에 넣고 작은 편지를 쓴다.

‘어보 사랑해. 필요할 때 써’라고.

그리고 와이프가 잘 안 보는 곳에 넣어둔다. 절대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철저히 와이프 기준으로.

• 습관

수업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다.

학생 :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 : 쉬는 시간에는 뭘 하고 수업 시작하니 화장실에 가는 거냐?

학생 : 제가 잠을 자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는 습관이 있거든요.

(독자제보 환영)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IP동창회 李景載회장
(삼진엘앤디 대표)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동창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에서 삼진엘앤디 李景載(AIP 32기)대표를 제13대 회장에 선출했다.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진엘앤디에서李 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취임 소감은.

“AIP동창회는 모교 특별과정 동창회 중 AMP 다음으로 큰 동창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조직에 몸담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국가와 모교의 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그마한 힘이지만 앞장서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 동창회 행사는.

동문이 많은 동창회 특성상 사전에 미리 일정공지를 통해 동문들의 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 회장님과 기별 회장님들을 모시고 동창회 운영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자리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별 네트워크 통한 참여율 증대”

“현재 50기까지 수료했으며, 2천7백여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학술모임, 등산·골프대회 등 전체 동문이 함께하는 자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 기별 모임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동창회 장점은.

“각계의 CEO부터 고위직 공무원, 국회·검찰 관련 인사, 군 장성까지 다양한 직종의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속력이 강하고 분야를 뛰어넘는 광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 동창회가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활성화 방안은.

“기준에 SNS, 이메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를 비롯해 임원과 운영진들이 발로 뛰며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CEO·고위직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문에게 한 말씀.

“어떤 모임이든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참여를 재촉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어떻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동창회’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李회장은 1944년 전남 출생으로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LG전자, 삼성테크윈, 대우전자부품 임원을 거쳐 1987년 삼진엘앤디를 창업했다. 중국, 미국, 멕시코, 슬로바키아, 일본에 법인이 있으며 3천여 명의 직원이 속해 있다. 모교 AMP과정(53기), GLP과정(18기)을 수료했으며, 현재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邊)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SP동창회 崔巨勳회장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낸 법무법인 에이스 崔巨勳(법학76-80·ASP 16기)변호사가 올 초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ASP동창회는 발족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활동은 미미했다. 지난 5월 19일 만난 崔회장은 “부산지부동창회 마로니에 모임, 산우회

대적으로 AMP동창회 등과 비교해 적극적인 분들이 적죠. 은퇴하면 모임에 나오기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래도 현재의 40~50대 동문들이 많아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운영 방안은.

“제가 부산지부동창회의 마로니에 모임과 산우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어요. 이를 경험 삼아 지난 2월부터 매월 둘째 화요일은 포럼, 넷째 토요일은 등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당분간은 자주 모여야 조직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참석 회원이 30여 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

“매월 등산·포럼 행사로 단합 유도”

활동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활성화에 불을 지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소감 한 말씀.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2012년 3월 서울에 왔어요. 과정 수업도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받았죠. 16기 동기회장을 하면서 동향인 ASP 錢英燮주임교수의 부탁으로 맡긴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게 많죠. 말은 이상 1년 임기니까 짧고 굵게 해 나가야죠.”

— 동창회 소개를.

“모교 사회대 경제연구소에서 만든 과정이다 보니 금융계 임원들이 많습니다. 회원은 26기까지 8백50명 정도 되고요. 매년 1월 총회, 봄 조찬모임, 가을 골프모임, 11월 테마여행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 침체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회원들 다수가 봉급생활자다 보니 상

면 좋은 결실을 보리라 봅니다.”

—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포럼, 등산 등 모든 모임이 시간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미겠습니다. 한 번 만나더라도 많은 회원들과 진득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崔회장은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홍성·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산시,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부산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과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마라톤 풀코스 3회 완주, 60km 완주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마라톤 애호가다. (南)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아동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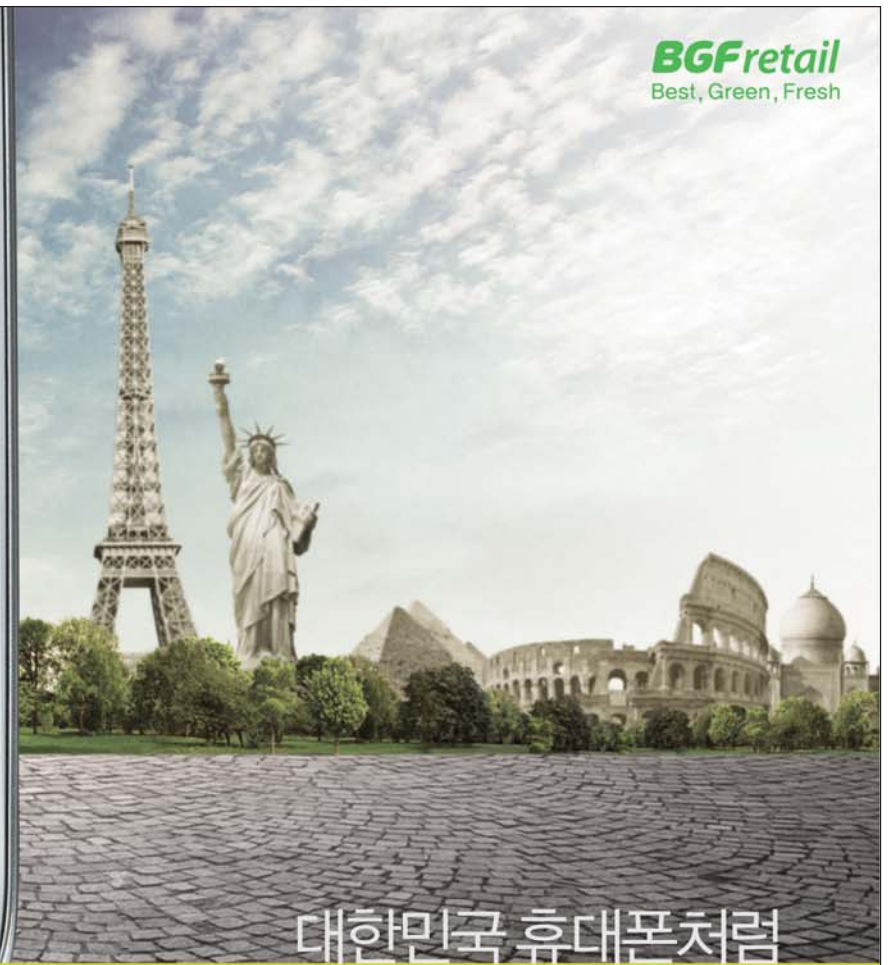
당신에게만 당신이 필요하다
결혼해 듀오

듀오

한국대표결혼컨설터
15개
-8333

1995 19년 역사와 규모, 매출 1위
(2013년 매출액 기준)
성혼커플수 28,974명
(2014년 5월 19일 기준)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환법 대상법인(총 자산 100억 이상 기업만 해당)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포함 모든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입니다.
*성혼커플수는 듀오에 가입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 2. 14~2014. 5. 19)



대한민국 휴대폰처럼

편의점에도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쯤은 있어야 합니다

세계 거리 곳곳마다 자리잡은 편의점

그 편의점이 대한민국 브랜드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우리의 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생활문화공간으로 새로워진 CU-

대한민국 1등 편의점을 넘어, 세계적인 편의점으로

더 높이 도약하는 CU의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편의점



화제의 동문

모교 빅데이터연구원 車相均원장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빅데이터(Big Data) 시대를 맞아 자주 쓰이는 속담이다. 오늘날 트위터에는 하루 5억 건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각종 센서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물건을 사거나 회사에 가는 일상적인 행동 또한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된다. 흩어진 구술을 엮어 목걸이로 만들 듯, 방대하게 쌓인 데이터를 융합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곧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력인 것이다.

모교 빅데이터연구원이 이러한 시대의 선도 기관을 자처하고 나섰다.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車相均(전기공학76-80)교수가 원장을 맡고, 다양한 전공 교수 1백70명이 참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초학제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4월 10일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원식 겸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화제가 됐다.

각 분야별 교수 1백70명 참여

빅데이터연구원은 ‘개방형 빅데이터 연구의 장’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사회·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응용해 정부기관과 국내외 기업체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력을 제공한다. 최근 관악캠퍼스 연구

실에서 만난 車원장은 “개원식에 여러 국가 기관과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온 분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 흐뭇했다”며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빅데이터’다. 얼마나 커야 ‘Big’데이터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車원장은 “데이터의 용량(Volume)과 더불어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처리하는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이 빅데이터를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3V)”라고 짚어줬다. 단순히 데이터의 용량이 크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아닌 것이다. 이 중 빅데이터의 다양성에는 ‘영상·사진과 같이 문자나

숫자로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라는 뜻도 있지만, 車원장이 강조하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다.

“지금은 기관이나 기업, 또 그 내부 부서가 각각의 ‘칸막이’ 안에서만 데이터를 쌓아 놓고 쓰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면 못 봤던 정보가 보이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를 결합해서 더 완전한 정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빅데이터 퓨전’도 빅데이터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죠.”

그는 ‘빅데이터 퓨전’을 연구원만의 특화된 분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화 데이터를 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벤처기업 ‘TIM’을 세웠고, 2005년 세계 최대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SAP’가 그의 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공동 개발에 참여해 기술을 완성했다. 오늘날 BMW, 삼성전자, 콜게이트 등 글로벌 기업이 사용하는 SAP의 소프트웨어 ‘HANA’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美실리콘밸리에 벤처 설립도

선견지명을 가진 그의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성능에 반비례해 메모리 가격은 저렴해지면서 실용성도 더욱 높아졌다. 車원장은 20년 동안 묵묵히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어렵기로 소문난 실리콘밸리 진출의 성공 사례를 남긴 그에게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소감과 포부를 물었다.

“교수로서는 좀 엉뚱한 일을 한 셈인데... 벤처기업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과 함께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어려웠지만 많이 배웠고 이번에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퍼드대 박사학위 과정에서 사람과 데이터베이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언어학, 인지심리학, 철학을 함께 공부한 것, SAP를 통해 경영학 지식을 익힌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빅데이터 연구가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모교의 융합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SNUe컨설팅센터 韓宗勳센터장

눈부신 경제성장을 뒤로 한 채 7년째 국민소득(GDP)이 2만 달러 대에 머무르며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다. 산업구조의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교 공과대학이 우리 산업계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월 10일 개소한 SNUe컨설팅센터를 통해서다. 센터는 공대 전 학과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 기술 사업화, 기술자문, 기술교육, 기술감정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한다. 특히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중점적으로 해결,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허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교 공학연구소장인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韓宗勳(화학공학80-84)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다.

기업에 1:1 전문가 매칭

QS 아시아 대학평가 공학·기술 부문 10위권에 드는 연구 역량, 3백20명의 교수진과 7천여 연구원의 막강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모교 공대다. 이제 그 역량이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산업계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관악캠퍼스에서 만난 韓센터장은 “모교 공대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적잖은 책임감을 내비쳤다.

기술 연구·개발에 목말랐던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뜨겁다. 개소와 동시에 공대 59개 연구실을 개방한 오픈랩 행사에는 1백여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기업과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매치 메이킹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센터 홈페이지(<http://eritech.snu.ac.kr>)를 통해 기업이 기술 의뢰를 하면, 공대 학부마다 선정된 전문 코디네이터 교수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대 공대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교수를 개인이나 팀으로 매칭해주는 식이다. 현재 50건 넘는 요청

중소기업 기술 문제 원스톱 해결사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이 목표”

중 4건은 계약 완료, 6건은 검토 중이다. 기업과 교수 양쪽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1차 미팅 성사율이 90%에 달한다.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그냥 서울대 교수님들과 얘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이런 게 될 줄 몰랐다’며 반가워하십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보람이 크다’며 최소한의 자문비만 받고 참여해주고 계세요.”

모교에 산학협력 기관으로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가 있지만 센터는 공대 교수진이라는 전문인력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수요자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산학협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韓센터장은 “국내 주요 대학의 기술이전 수익이 해외 주요 대학의 5%에 불과하다”며 “논문, 특허 개수



위주가 아닌 시장 친화적인 연구,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젊은공학인상 받아

韓센터장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 사업화’ 전문가다. 화학공정시스템을 전공한 그의 에너지·환경 공정 기술 등은 많은 국내 대기업들에 이전돼 큰 경제 효과를 낳았다.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인 공로로 2011년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을 받기도 했다.

“원래부터 기술의 사업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공대에 입학한 이유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 성공하자’는 생각에

서였죠. 언제나 하고 싶었던 일이기에 센터 일이 즐겁습니다.”

6만5천명에 달하는 동문 네트워크는 모교 공대의 또 다른 자산이다. 韓센터장은 “현직 교수진 외에도 뜻있는 명예교수, 동문들에게 자문을 구할 예정인데 벌써 60여명의 동문이 센터를 돕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보다 넓은 차원의 동문 참여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그가 박사과정을 밟은 MIT는 대학 기술 기반의 창업이 활발한 곳이다. 기술 하나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기까지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동문 네트워크의 지원이 함께한 것을 눈여겨봤다. 그는 “모교의 유망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곧 모교에 기부하는 것과도 같고, 투자자와 학교, 창업자 모두 윈윈하는 일”이라며 모교의 유망 기술에 대한 동문들의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 또한 전했다.

韓센터장은 “시작은 작지만 목표는 구체적”이라며 센터의 밝은 미래를 자신했다.

“서울대 공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60~80년대 산업 발전의 견인차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 앞에 선 지금,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맡아야 할 때 같아요. 센터에서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다른 대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서울대 공학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요.” (秀)

화제의 동문



이제부터는 기계로는 갈 수 없는 길

정적을 깨뜨리는
엔진소리도 빌딩숲도 없습니다
기계가 아닌 오직 인간의 힘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산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스스로가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노스페이스는
더 큰 힘을 갖게 해줍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다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최고 석학 발굴 위한 ‘탐색위원회’ 신설해야”

동문을 찾아서

대한민국학술원 權肅一 회장

1954년 문을 연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들의 전당이자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경륜과 지혜를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무게를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대한민국학술원 사무실에서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權肅一(물리54

-58)동문을 만나 개원 60주년을 맞은 학술원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權회장은 “탐색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해 최고의 석학을 모시는 한편 학술원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담 : 鄭星姬(동아일보 논설위원) 논설위원

— 개원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학술원의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소감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모인 학술원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무거운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우리나라 학술연구 발전의 최일선에 계신 최고의 학자들에게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며 후학 양성에도 배전의 지도를 하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선진 한국 건설에 선구자 역할을 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학술원이 우리나라 학술연구 발전의 중심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친근한 단체는 아니죠.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학술원은 학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할 만큼 학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단체이지만 일반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서 많은 예우를 받는 만큼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 난제가 생겼을 때 석학들의 지혜와 경륜을 동원해 국민의 정서에 맞는 해법을 찾도록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술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면 학술원이 국민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지금 하신 말씀이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인가요.

“가장 큰 역점 사업은 어떻게 국내 최고의 석학을 신입회원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결원된 회원의 전공에 한정해서 해당 학회의 추천을 받다 보니 전공의 시대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석학이 선임되지 않기도 합니다. 추천 받은 분이 활동 당시에는 물론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현시점에서 더 뛰어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최고의 석학을 발굴하기 위해 탐색위원회(Search Committee)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학술원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면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이 아닐까 합니다. 수상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55년 제정된 대한민국학술원상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학자들을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고의 학



일본과 학술교류·중국과 인적교류 진행 한국물리학회장·과학기술처 장관 지내

술기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으로 그 권위와 위상이 제일 높은 상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자 신청을 거쳐 인문학계열 2명, 사회과학계열 2명, 자연과학계열 기초분야와 응용분야에서 각각 2명씩 총 8명의 후보자를 선정 후 최종적으로 최대 6명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 관련해 아쉬운 점은 자기추천으로 신청하게 돼 있다 보니 정말 뛰어난 업적을 가진 분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연구업적 및 논문을 통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연계와 달리 인문계는 뚜렷한 평가 지점이 없다 보니 몇 년 동안 수상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탐색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현재 학술원 회원 구성은.

“학술원 회원은 1954년 문화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정원이 80명이었으나 당시 선출된 회원은 63명이었습니다. 현재 정원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75명, 자연과학 분야 75명으로 총 1백50명이나, 작고하신 회원이 있어 1백34명입니다.”

— 정부에서 많은 예우를 받고 있다고 하

• 權회장은

모교 문리대 물리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과정, 미국 유타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방부 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지난 1966년 모교에 부임해 연구활동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한국물리학회장,

과학기술처(現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물리학회 논문상(1988년), 대한민국 과학상(2000년), 청조근정훈장(2003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2008년), 자랑스러운 자연대인상(2012년) 등을 수상했다.

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우선 매월 정부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회원의 임기를 4년에서 평생으로 승격시켜 평생회원이 됐습니다.”

— 학술원의 모델로 생각하는 해외의 비슷한 기관이 있는지.

“외국에도 우리와 같은 기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당을 받고 정부 예산

서 다른 대학원에 있는 동기생 두 명과 함께 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입자가속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 대학원 학생들이 1960년대에 국내 최초의 대형 입자가속기를 완성했다는 것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었는데, 尹교수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으며, 교수님 영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현재 모교가 법인화 이후 첫 총장 선출을 진행 중입니다. 법인 서울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모교가 법인화가 된 것은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예산, 인제 등용 등을 모두 관리하는 틀 안에서는 발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화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성에 있다고 봅니다. 새 총장은 법인화의 장점인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동창회 및 동문들에게 한 말씀.

“동문들의 결집력을 키우는 일이 서울대 총동창회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대 동문들의 결집력에 비하면 우리 동문들은 자기 중심주의로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총동창회 임원진은 장학발달 건립,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계획, 120년사 편찬 사업 등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공헌을 하며 많은 동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 왔습니다. 또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듣고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지만 좀 더 모든 동문들의 결집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문 역시 각자의 우수성만 믿고 홀로 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남과 어울리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상부상조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사진= 邊廷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코란도와 함께
가슴이 시키는대로 달려보세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져
무작정 동해로 떠났던 열정

가진 건 젊음 뿐이라며
배낭 하나 메고 떠났던 모험

그랬던 당신,
지금은 가던 길만 가고 있지 않나요?

가끔은 코란도와 함께
가슴이 시키는대로 달려보세요

I LUV Korando Leisure Utility Vehicle



디테일과 감각을 더한
2014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korando
TURISMO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080-500-5582 • www.smotor.com 참조

[illegible]

“세월호 사건 오보 언론사에 강력 시정권고”

동문을 찾아서

언론중재위원회 **朴容相**위원장

지난 4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차容相(법학63-67)동문이 제1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차동문은 평생을 언론법 실무와 연구에 매진해온 자타공인 국내 최고 언론법 전문가로 통한다. 국내에 반론권과 언론중재 제도

를 도입하고,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법’, ‘표현의 자유’ 등 언론법 관련 저술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취임 한 달여를 맞은 지난 5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6층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차위원장을 만났다.

대담 : 金希媛(한국일보 사회부장)논설위원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일이 적지 않네요. 상근이 아닌데 매일 나오게 생겼어요(웃음). 2003년 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직을 사직하고 10여 년간 저술에 몰두해 ‘명예훼손법’, ‘언론의 자유’를 출간했죠. 연구한 결과를 활용해 봉사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쁩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야기되는 여러 법적 분쟁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언론중재위 소개를 해주세요.

“1981년 설립돼 올해로 33주년을 맞았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둔 법정기구죠. 서울 8개 등 전국에 걸쳐 18개의 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의 분쟁을 조정, 중재합니다. 법원의 소송절차와 달리 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무료로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언론중재 신청은 얼마나 됐나요.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40~50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지난해는 2천4백33건의 언론조정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인터넷 언론 등 매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이 불완전한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도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 신문, 통신,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신청 건수가 60%를 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전체 접수 사건 중 77.6%가 원만하게 조정이 이뤄져 피해구제가 된 점입니다.”

— 1인 미디어 등 인터넷 언론매체가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실상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SNS와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등의 글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 중재위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일단 현재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뉴스를 생산하고 논평기능을 갖춘 매체로 한정하는 것이죠. SNS는 우리가 심의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받는 피해나



“재난보도시 인격권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 40년간 언론법 연구...국내에 반론권 도입

언론기관에서 받는 피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능을 모두 가져와야 할지 아니면 기사를 링크해 확산하는 것까지만 포함해야 할지 숙제입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문제는 우리 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규제를 대행하는 지위를 갖게 된 만큼 인터넷 중개자들이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규제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과 면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도 언론 보도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번 세월호 보도에서 사건 현장의 긴박감이나 심각함을 전달하려는 기자들의 의욕이 자칫 잘못해 피해자들의 심각한 민감한 인간 존엄의 감정을 해치고 구조 작업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자 숫자를 잘못 보도한다거나 가짜 잠수사 여성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터뷰한 것 등이 가장 심각했고, 피해자 가족들을 너무 근접 취재해 인격권을 해친

•朴위원장은

모교에서 언론법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 취득 후 제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판사 임관 3년 만인 1975년 독일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1년 3개월간 영미법과 대륙법을 비교 연구했다. 1980년 모교에서 ‘출판의 자유와 공적 과업’이란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언론법과 제도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재난보도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계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언론중재위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심의해 해당 언론사에 대해 서면으로

이후 방송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및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 및 논문으로 ‘한국의 언론법사’,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방송법제론’,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이론’, ‘언론과 개인법익’, ‘명예훼손법’, ‘언론의 자유’ 등이 있다.

40년간 언론법 연구에 정진하며 그동안 미디어와 전문지 등에 소개된 관례와 논문을 수집, 정리한 방대한 개인 아카이브를 보유하고 있다.

부한다고 하니까 ‘어, 그거 어려운데’ 하시더라고요. 어려우니까 하고 싶었어요. 민법과 상법은 법전이 있고 조문이 많은데 언론법은 조문이 전혀 없어요. 반면 언론분쟁, 관례는 수없이 많죠. 그 일을 정리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공부할 당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던 시대적 상황도 한몫 했죠.”

— 과거 법조인으로서 가장 인상에 남는 언론법 관련 사건이라면.

“제가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담당한 언론법 관련 사건은 2005년 신문법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이죠. 당시 참여정부가 이른바 언론개혁입법으로 제정한 신문법은 신문에 대해 방송과 같이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해 신문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었어요. 신문은 그 논조와 경향에 정체성을 가지며 그에 의해 보도·논평하는 자유가 헌법상 보호되는 신문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 신문법은 신문의 윤리적 관행을 법적 의무로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다양성 원칙과 여론의 자유의 요청에도 배치되는 것이었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그러한 신문의 논조 보호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정보도의무를 단지 추상적·선언적 규정이라고 봤지만, 국회는 2009년 개정에 의해 제가 주장하는 위헌적 규정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은.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한다면 삶의 의의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정리=金南柱기자)

시정권고하는 기능이 있어요. 곧 소위원회 열어 명백한 오보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 언론보도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위자료 인정 액수를 점차 높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1990년 이전 법원이 인용하는 명예훼손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을 넘지 않았죠. 1990년대 이후 1천만원을 넘는 사례가 다수 나왔고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건전한 비판과 여론 형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특히 공공의 감시를 받을 지위에 있는 공인이 언론에 의한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액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 언론법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은사님인 金道稔교수님께 언론법을 공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posco

거실의 TV 속에도



할아버지의 휠체어에도



동생들의
태양열 온수기에도



삼촌의
플렉시블 태블릿 속에도



누구에게나
포스코가
있다

엄마의 마그네슘 프라이팬에도



누나의 첫 차 속에도



큰 형의 자전거 속에도



공부방의
LED 전구에도



당신은 매일 생활 곳곳에서 수 많은 포스코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펼쳐가는 포스코.

더 나은 내일로 당신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세계 최초 자동차용 초고강도강 등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양산 /
해양플랜트 등 고품질 에너지 강재 시장 선점 /
2013년 WSD(World Steel Dynamics)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4년연속)



첨단 신소재

세계 최초 리튬 추출 기술 개발(2차전지 핵심원료로 전기자동차, 휴대폰 등에
쓰임) 및 음극재 생산 / 국내 최초 마그네슘 제련공장 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
(자동차강판 등에 사용되는 망간) 생산 / 제철부산물 활용한 탄소소재사업



그린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석탄화력 등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 차세대
에너지-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 풍력(탐라해상풍력), 태양광
(미국 네바다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INNO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Venture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투자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벤처기업

ISO 9001, ISO 14001 인증업체

홈페이지 : www.de.co.kr (6월 초 리뉴얼 예정)



2014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대은산업 주식회사

1979년 부터 축적된 포장노하우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시장의 합리적인 포장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포장솔루션** 회사로 나아갑니다.

※ 2014 KOREA PACK 참가(6월 10~13일 KINTEX) ※ 2013 미국 지사 설립(워싱턴D.C) ※ 2005 수출 오백만불 탑 수상



자동 PP밴드 및 PET밴드



반자동 포장기계



자동포장기계



팔렛트형 포장기계



합시트커버링 &랩핑



대은산업 주식회사 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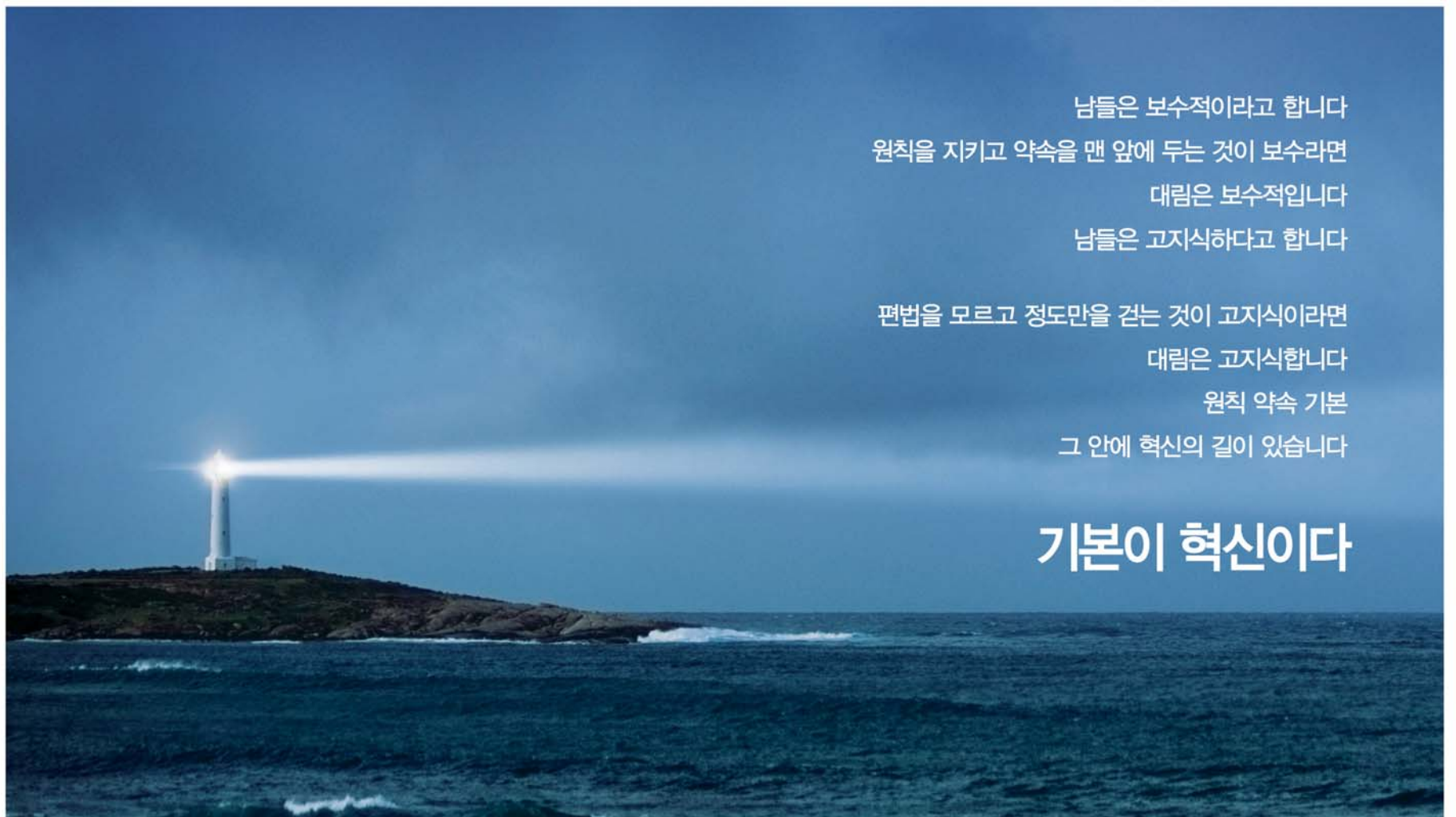
밴드 생산 라인



대은 산업 주식회사 (본사)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87(정왕동,시화공단 1라 508호) TEL : 031)497-2211 FAX:031)499-0717 E-mail : daeeun@de.co.kr

대은 엠비코 주식회사 (포장기계 제조, 설계)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26-103 TEL : 055)312-4960 FAX: 055)312-8655

대은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미국지사) 7652 Graysons Mill Ln, Lorton, VA 22079 TEL : 001-1-703-989-1530 E-mail : daeeunglobal@gmail.com



남들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맨 앞에 두는 것이 보수라면
대림은 보수적입니다
남들은 고지식하다고 합니다

편법을 모르고 정도만을 걷는 것이 고지식이라면
대림은 고지식합니다
원칙 약속 기본
그 안에 혁신의 길이 있습니다

기본이 혁신이다

DAELIM

제7회 발전공로상 4명 시상

趙天植·朴永姬·愼昌宰·柳會振동문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5월 28일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제7회 발전공로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정보통신 趙天植(정치 45입)前고문, 소천교육연구재단 朴永姬(수학교육54-58)이사장,

교보생명 愼昌宰(의학72-78)회장, 故 柳會振(기계설계78-82)前동아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오늘 수상자들은 경영자, 교사, 사회활동가 등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랑, 나눔’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동문님들께서 모교를 지원한 거룩하신 마음에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며 “모교가 전 분야에서 세계 명문 대학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趙天植동문은 후학들의 좋은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모교 중앙도서관에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쾌척했다. KAIST, 천주교 대전교구에도 거액을 기부하며 나눔과 배려의 철학을 실천한 趙동문은 ‘나눔과 봉사의 주인공’으로 뽑혔으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朴永姬이사장은 모교 국제대학

원에 소천교육연구재단을 설립, 한국학센터기금과 소천장학기금 등을 쾌척하고 해외 11개 대학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소천한국학 장학기금을 조성하며 한국학 진흥에 공헌했다. 또한 1986년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며 개인 기부 문화를 이끌었다.

愼昌宰회장은 모교의 학문 균형 발전을 위해 기초의학 발전기금과 장학금 등을 기부, 모교 후배들의 기초학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 모교 의과대학 부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던 愼동문은 현재 경영자로서 인간 존중의 정신을 접목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故 柳會振동문은 2009년 구강암

투병 중에 유산 기증을 약정, 2011년 별세하며 모교에 본인의 전 재산을 쾌척했다. 평소 자신에게는 엄격했으나 이웃과 사회에 베푼 사랑을 실천해 온 柳동문의 기부금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공동 활용할 ‘柳會振학술정보관’의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 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보직교수와 본회 徐廷和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故 柳會振동문의 외사촌형인 대전대 孫泳奭 前교수 및 수상자 가족 등 각계 인사 1백여 명이 참석했다. (秀)

스포츠 정신으로 소통·공감

총장배 구기대회 개최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교수, 교직원 이 참여하는 총장배 구기대회가 진행됐다.

지난 5월 7일 모교 金永梧(토목공학85-89) 학생부처장과 崔義昌(체육교육82-86)체육부장 등 주요 인사와 재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다.

이날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뜻으로 참석자들은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등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기대회는 축구·야구·농구·테니스·탁구·배드민턴 등 여섯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테니스



스 여자단식 우승자 李保瑩(외교 09입)양은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구력이지만 여자단식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한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생대 앞-신공학관 정삼-기숙사 삼거리-후문-인현초등학교를 반환점으로 총 10km 코스를 달렸다.

이날 경기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학생조 : 박준성(약학12입)·임사라(심리12입) ▲교수조 :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尹忠植(식품공학82-86)교수 ▲직원조 : 생활협동조합 양형모·포스코스포츠센터 김민영 ▲단체조 : 달리샤

제7회 종합마라톤 개최 2백33명 10km 완주

지난 5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제7회 종합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총 2백6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그중 2백33명이 완주했다. 참가자들은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본회서 체육기금 2천5백만원 전달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5월 16일 모교 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교 야구·미식축구·럭비·축구·핸드볼부에 5백만원씩 총 2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1999년부터 매년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를 지원해온 본회는 2003년 럭비부, 2007년 축구부, 2008년 핸드볼부를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보대원 원장에

趙炳熙교수 임명

지난 5월 11일 모교 보건대학원 원장에 보건학과 趙炳熙(사회73-77)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趙원장은 1977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스탠퍼드대 석사

학위, 위스콘신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와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2000년 모교 보건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또 한국보건사회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金相建·徐永鉅·李禮植·李相燮·邊昌九·李金器·張龍鐸·吳然天·李奉振·趙慶一·任廷基·李殷芳·李東昊·金炯周동문

1백75억 들여 신약개발센터 개관

약학대학

약학대학(학장 李奉振)은 지난 5월 12일 관악캠퍼스 신약개발센터(143동) 1층 대형강의실에서 신약개발센터(센터장 金相建) 개관식 및 감사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奉振학장, 李相燮·李殷芳 명예교수, 발전기금 金炯周 상임이사 등 교수진, 극동제약 李禮植(약학46-49)前명예회장, 일

동후디스 李金器(약학55-59)회장, 신풍제약 張龍鐸(약학55-61)회장, 하나제약 趙慶一(약학64-68)회장을 비롯한 제약업계 관계자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李東昊(의학79졸)단장 등 각계 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센터장인 약학과 金相建(제약78-82)교수의 경과보고에 이어 李奉振학장이 제약학과 徐永鉅교수, 약학과 鄭鎭浩·李智雨교수, 다울건축사사무소 愼東宰(건축82-86)대표, 레인보우ENG 김병환 소장, 주성건설 김학준 소

장, 건우건축설비 전철성 소장에 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테이프 절단과 제막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센터 내부를 둘러본 후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로 이동해 감사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연면적 8천9백6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신약개발센터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제약회사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동문, 명예교수 등이 47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고 1백28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아 건립했으며,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센터 1층에 신풍홀·일동홀·하나홀·환인홀 등과 李殷芳명예교수의 호를 딴 한당홀 등을 마련했다.

제24회 발전공로상 수여

패를 전달했다.

우리나라 철강기술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權회장은 모교 공대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연구과제 위탁, 석좌기금 개설, 전문 연구실 지정 등에 힘썼으며 동창회 활동과 후학 지원에도 앞장섰다.

고사장은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난 10년간 모교에 산학장학금과



權五俊·李建雨동문, 高載浩사장

산학연구과제를 지원했으며, 교과목 공동 운영과 현장 전문가 강의 등 교육 지원과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香)

코스맥스 李慶秀회장

약학대학에 10억원 쾌척

코스맥스 李慶秀(약학66-70)회장이 지난 5월 2일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종강 공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코스맥스 발전기금 협약식'에 코스맥스 李慶秀회장, 文聖基부회장과 모교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등이 참석했다.

이 기금은 모교 약학대학의 교육·연구 활동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모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李동문은 국내 유수의 제약업체에 몸담은 데 이어 1992년 코스맥스를 설립, 국내 최대의 화장품 ODM(제



李慶秀회장, 吳然天총장

조자개발생산) 업체로 성장시켰다. 또 지난 2월부터 약학대학동창회 회장을 맡아 약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李동문은 “모교 약학대학이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대학으로 자리잡고, 신약개발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자 朴永姬동문에 감사 전해

모교 발전기금

모교 발전기금은 20여 년간 개인 기부자로서 모교에 장학기금 등으로 약 27억원을 기부해온 朴永姬(수학교육54-58)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4월 29일 국제대학원 소천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素泉 朴永姬여사 감사 행사'에 朴永姬동문과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국제대학원 文輝昌원장, 李根부원장과 교수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소천 장학생 등 총 1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랜 기간 모교

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헌신해온 朴동문에게 공로패와 선물을 증정했다. 이어 국제대학원 학생들의 영상 메시지와 장학생의 편지 낭독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朴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朴동문은 용산문화원장,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한편 모교 국제대학원의 교육·연구 시설 확충에 힘쓰며 한국학진흥과 인재 양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朴동문은 “앞으로 모교가 세계 한국학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모교 학생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의원 시계탑 복원
모교 병원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은 지난 5월 8일 연건캠퍼스 대한의원에서 시계탑 복원 성공 기념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는 1908년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한

대한의원 시계탑을 공개 전시하는 한편 시계탑에 대한 설명과 변천사, 복원사업뿐만 아니라 시간의 이해, 시계제작의 역사, 시간과 의학의 관계, 시계탑에 얹힌 추억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시계탑 복원에 소요된 비용은 丁憲源 前병원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진이 모은 4천만원으로 충당했다. (秀)

재학생의 소리

군복무 중 학점이수 가능했으면...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맞게 국립대인 서울대학교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총동창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교에서 재학생들에게 사이버 원격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만 학점을 이수하게 될 경우 학업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공개하는 데에 주저하는 교수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립대로서 대학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모교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학점 취득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방부의 권고사업인 군복무 중 학점이수제가 모교에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

습니다. 2014년 현재, 원격강좌 학점이수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1백9곳이나 됩니다. 다행히도 온라인 강의 공개에 많은 교수님께서 참여해주시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강의 개설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한 과제물 제출과 중간·기말시험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원격 강의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면 군복무 중 학점 이수제도를 모교에서도 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SNUON(서울대 열린 교육 시스템)과 명품강의를 엄선해 제공한 '열린강

좌' 등은 온라인 학점취득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제56대 총학생회는 공약사항으로 군복무 학점 이수제도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속된 말로 '군대를 다녀오면 머리가 비어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교에서 이 제

李慶桓

(물리천문05입)총학생회장

도가 시행된다면 재학생들이 군복무 중에도 단절 없이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가 많은 강의부터 점차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위한 설비투자가 더 필요합니다.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재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동창회에서도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26년간 축적된 엔지니어링 노하우와
앞선 기술력으로 전세계 고객 여러분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World Wide Engineering & SI Solution Provider



국내 건설링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대영유비텍주식회사
DAEYONG UBITEC Ubiquitous Technology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7F
대표이사 조근환
TEL 070-7432-3000 FAX 02-2633-5839 E-mail : datec@dyang.net http://www.dyang.net

대한민국 소망과 문화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국내 최고 지상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롯데백화점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롯데백화점 **다우존스 미래경쟁력**
4년연속 세계 1위 수상

Pride of Korea

대한민국에도 세계가 부러워할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꿈이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와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도록
미래경쟁력 세계 1위, 롯데백화점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모델
소녀시대(Girls' Generation)

수학의 正道를 지향하는 정통수학아카데미
검증된 강사진의 정확한 가르침이 있는 **개념소소**

최상급수학전문학원

개념소소

수학의 정도를 지향하는 개념상상
교육에도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선행은 단단한 내신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교육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개념상상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념상상 선행수업

1. 명목적 선행수업이 아니라 개념에서 활용까지 제대로 가르칩니다.
2. 내신, 수능까지의 학습계획을 작성,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3. 수강능력이 있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수업충실도가 높습니다.
4. 강의+연습+TEST+보충으로 빈틈없이 지도합니다.

개념상상 내신수업

1. 수년 간 축적된 학교별 데이터로 출제의 경향분석 및 예측이 정확합니다.
2. 정확한 개념강의로 낯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3. 꼼꼼히 가르치고 약한 부분은 수시로 보충하여 철저히 관리합니다.
4. 수준별 반 편성으로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개념상상 특강수업

1. 정규반과 동일한 시수를 확보하여 충실한 강의가 가능합니다.
2. 본문과 연습문제 어느 것도 빠뜨리지 않는 제대로 된 특강입니다.
3. 매 회 TEST를 실시, 학습충실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특강 종료 후 TEST오답노트를 제공, 복습에 도움을 줍니다.

개념상상 특화수업

1. 다양한 맞춤형 클리닉 수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2. 학교별 Team 수업 (수학, 과학) 모집합니다.
3. 학기 중 주말 특강 운영합니다. (선행, 내신 문제풀이, 고3 모의고사 등)
4. 어려운 부분을 보충, 복습하는 동영상 수업 상시 진행합니다.

 **개념소소**
최상급수학전문학원
고등관 ☎567-0508(대치)

 **개념POLYA학원**
How to Solve It
초·중등관 ☎557-4808(대치)

 **개념소소학원**
고등관 ☎547-4808(압구정)

 **캐리어에어컨 Klarwind**
turn to the experts



CSV-065GW
CS-A061AW
CDH-1305DBR
CSR-35WD
CSR-164WD



무더위 끝! 캐리어 에어컨!
냉난방 끝! 캐리어 냉난방기!
습기 끝! 캐리어 제습기!
와인도 끝! 캐리어 와인셀러!
100년의 기술 캐리어!

전화상담도 해준다면?
 (주)대우캐리어판매 02-847-8736 / 010-4793-2760

콩트 릴레이

오해에 대하여

李在益(영문94-01)

SBS 라디오1부 PD·소설가



오랜만에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다. 수 많은 업무 메일과 그것보다 더 많은 스팸 메일 사이에서 그녀의 메일은 땅에 떨어져 반짝이는 새 동전처럼 눈에 걸렸다.

— 저 송지예요. 기억하세요?

특이한 이름은 이럴 때 유리하다. 단번에 그녀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 송지. 알지. 성이 뭐였더라?

그녀를 처음 본 것은 4년 전 밴쿠버에서였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취재단의 일원이었던 나는 한 달 동안 밴쿠버에 머무르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이면 아경이 끝내주는 항구 옆에 지어진

씩게 됐다. 처음에 어떻게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전날 있었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다.

“피디님! 혹시 쇼트 트랙 가서 보셨어요?”

“응. 운 좋게도.”

“우와.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두 가지가 놀라워. TV로 보는 것보다 빙상장이 훨씬 작아. 그리고 TV로 보는 것보다 선수들이 훨씬 빨라.”

“아. 나도 가보고 싶다. 혹시 다음 주에 김연아 경기도 직접 보세요?”

“

오해란 끔찍한 것이지만, 오해가 없다면

인생이 무척 따분하리라는 생각도 든다.

4년 전 밴쿠버의 밤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오해를 해명했을까?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삶에서 잠시라도

비껴서는 법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니까.

4년 전의 어느 날로 자꾸 돌아갈 순 없다.

”

IBC(국제방송센터) 건물로 출근했다.

일은 재미있었고 시차도 며칠 만에 익숙해졌는데 문제는 음식이었다. 입맛이라는 게 참 고집스럽더라. 대학 시절 한 달도 넘게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을 때는 한 끼도 한식을 안 먹고 잘도 버텼는데 나이가 들어선 지 며칠 만에 현지 음식에 질려버렸다. 아침은 호텔에서 과일로 넘기겠는데 매일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일이 관건이었다.

그때 가장 만만했던 식당이 맥도널드와 일본식 라면집이었다. 그중에서도 ‘겐조’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우리나라 취재단에서 단연 인기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김치가 나왔으니까. 일본식 라면집이긴 했으나 주인이 한국사람이었던 것이다. 올림픽 기간에 한국 취재단을 위해 특별히 김치를 내놓은 센스 덕분이었다.

과장 안 보태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겐조에서 라면으로 식사를 때웠다. 갈 때마다 한국 취재진들과 마주쳤으니 참 다들 어지간히 신메뉴 개발에 애를 먹은 듯했다.

그리 넓지 않은 식당에는 두 명의 웨이트리스가 서빙을 했는데 그중 한 명과 말을

지금 생각해봐도 의아하다. 식당은 항상 바빴고 그녀는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어떻게 대화가 가능했을까? 하긴 전쟁터에서도 연애는 하니까.

보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귀국하기 일주일 전 바다가 보이는 거대한 맥주가게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 첫인상은 믿을 게 못 되지만 첫 술자리는 그 사람이 대화상대로 어떤지를 파악하기엔 충분하다.

그녀는 대화상대로는 완벽했다.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다양한 하우스 맥주를 마셔가면서 우리는 쉼 없이 떠들었다. 나보다 12살이 어렸던 그녀는 휴학 중인 대학생이었고 캐나다에 온 지는 1년이 좀 넘었다고 했다. 왜 캐나다에 왔는지는 안 물어봤다. 다만 언제 한국으로 돌아갈 건지 물었다.

“모르겠어요. 딱 1년만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벌써 1년은 지나버렸네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캐나다에 살 생각도 있어?”

“한국에 살 때보다 행복하네요.”

“그럼 여기서 살면 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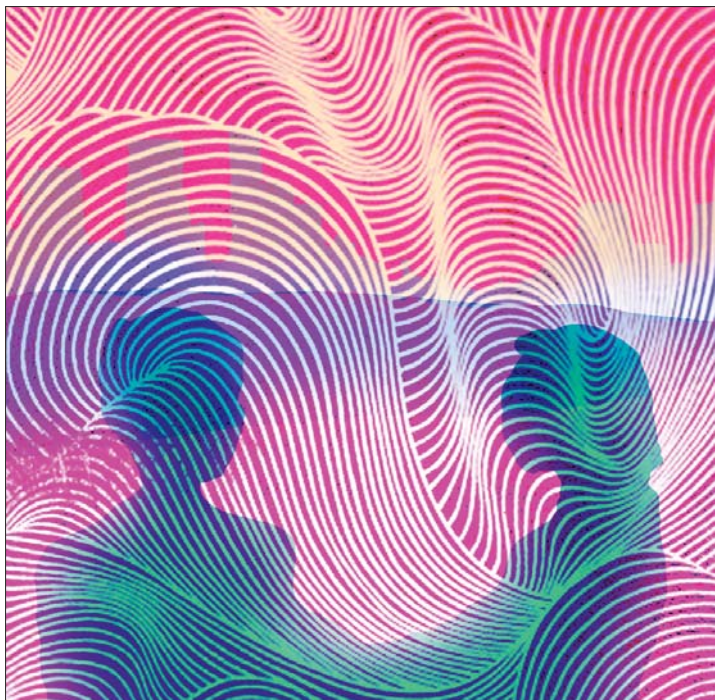
“오래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겠죠. 지금 저는 살짝 비켜서 있으니까. 여기서도 평생 먹고 살 궁리를 하려 든다면 한국에서처럼 갑갑해지겠죠?”

그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현실을 1년만이라도 비켜서 있을 수 있는, 외면할 수 있는 그녀의 젊음과 용기가 부러웠다. 나는 하루하루 쫓기듯 산지 이미 오래였으니까.

첫 데이트에서 우리는 자정이 넘도록 항구를 걸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나는 괜히 자꾸 휘파람을 불었다. 넘실대는 물결 위로 이국의 별자리가 반짝였다. 좋기만 한 밤이었다.

그 뒤로 매일 밤 만났다. 우리는 점점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앉았고 걸을 때면 항상 손을 잡았다. 캐나다가 속적 미국을 아이스하키 결승전에서 꺾은 광란의 밤, 우리는 첫 키스를 했다. 꼭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가 이긴 날 밤의 서울 같았다. 우리는 로큰롤이 쿵쾅거리고 모든 캐나다인들이 춤을 추는 바에서 끈질기게 키스를 나눴다. 아이스하키 결승전 따위는 누가 이기든 관심도 없었다.

귀국하기 바로 전날 밤 우리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 - 13)

그녀는 자기 이야기를 시시콜콜 많이 해주었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솔직하지 못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는 말해주었다. 나이가 서른여섯이고 직장생활을 한 지 10년이라는 사실도 말해주었으나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많이 취했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나는 우리의 감정을 확인했고 긴 키스 끝에 의사 표시를 했다.

“송지야. 니 방에서 술 좀 더 마실까?”

그녀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대답했다.

“그건 곤란해요.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남자친구? 술기운을 떨치며 재빨리 일주일간의 기억을 더듬어봤으나 그녀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그런 티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쪽도 그녀였는데,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헤어질 때마다 나누었던 포옹도 생각하고 돌아설 만큼 기분

이 나빴다. 그녀와의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4년 뒤 그녀의 메일을 받은 것이다. 내용은 간단했다. 그때까지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한다고, 보고 싶다는 메일이었다. 4년 동안 희석이 됐는지,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의 만남이어서인지 헤어질 때의 불쾌감은 흔적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4년 만에 그녀는 소녀티를 확 벗고 성숙한 여자로 나타났다.

“너 많이 예뻐졌다.”

“오빠는 그대로네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리가. 4년 치 주름이 생겼을 텐데.”

어둠 속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있자니 밴쿠버 항구에서 끊겼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술을 마셨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결혼을 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왔다고 했다.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랑?”

내 질문에 그녀는 피식 웃기만 했다. 그제야 4년 전의 불쾌감이 되살아났다. 맞다. 이 여자는 나를 바보로 만들었지. 나도 모르게 차가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웃기니? 뭐가 웃긴데?”

“오빠. 저 그때 남자친구 없었어요.”

이건 또 뭐지? 마지막 밤의 기억을 떠올려봤다. 내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나? 아닌데.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몇 번 만나면서 오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오빠 핸드폰 바탕화면에 아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훔쳐 본 건 아니고 오빠가 핸드폰을 열 때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도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계속 고민했는데, 결국 아닌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 얘기를 불쑥 지어냈어요.”

하. 이거 어찌지?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한참 고민했다. 그러다가 설명하지 않는 쪽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왜 4년이나 지나서 다시 보자고 했어?”

“이제 저도 같은 처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혼자니까 공평한 입장이란 건가? 어쩌지? 그때도 지금도 나는 기혼자가 아닌데?

같은 처지라는 그녀의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면서도 나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는 여전히 좋은 대화 상대였다. 술도 이야기도 쉼 없이 이어졌다. 밴쿠버에서 엮었던 인연은 그렇게 풀어지고 또 다른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었다.

오해란 끔찍한 것이지만, 오해가 없다면 인생이 무척 따분하리라는 생각도 든다. 4년 전 밴쿠버의 밤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오해를 해명했을까? 모르겠다. 나는 여전히 삶에서 잠시라도 비껴서는 법을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니까. 4년 전의 어느 날로 자꾸 돌아갈 순 없다.

아, 재회한 그녀와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고? 요즘도 만나느냐고?

호기심은 넣어둬. 이걸 아주 짧은, 소설과 에세이의 사이 어디쯤 있는 글일 뿐이야. 주인공이 필자라고 혼동하지 않길 바랄게. 오해는 이제 그만.

동 정

수 상

▲**全海宗**(동양사학47졸 서강대 명예교수)= 지난 5월 14일 대한민국의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趙 淳**(상대전문46-49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5월 14일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金南祚**(국어교육47-51 숙명여대 명예교수)= 지난 5월 16일 가톨릭신문이 제정한 제17회 한국가톨릭문학상(시부문) 수상.

▲**李吉女**(의학51-57 가천대 총장·가천길재단 회장·분회 부회장)= 최근 한국여자의사회 제58차 정기총회에서 공로상 수상.

▲**李翺燮**(국문56-60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지난 5월 14일 제33회 세종문화상(학술부문) 수상.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지난 5월 21일 한국수필문학가협회에서 제정한 한국수필문학상 수상.

▲**金聖權**(의학68-74 모교 내과학교실 명예교수)= 최근 아태신장학회 총회에서 로스베일리 공로상 수상.

▲**權五鉉**(전기공학71-75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5월 23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46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朴容晚**(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5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티어 만찬 시상식에서 2014년 벤 플리트상 수상.

▲**權五龍**(불문74-80 한국고원대 교수)= 오는 6월 18일 비평집 '사적인 것의 거룩함'으로 제25회 팔봉비평문학상 수상.

▲**南洪吉**(화학75-8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지난 5월 30일 호암재단으로부터 제24회 호암상(과학상) 수상.

▲**文愛理**(의학79-83 덕성여대 교수)= 최근 제4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수훈.

▲**李相輝**(화학공학82-86 KAIST 특훈교수)= 지난 5월 30일 호암재단으로부터 제24회 호암상(공학상) 수상.

▲**李賢淑**(대학원90-92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최근 생화학분자생물학회로부터 제10회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權聖根**(의학90-96 모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지난 4월 27일 제88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석당우수논문상 수상.

▲**曹英珉**(의학90-96 모교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지난 5월 10일 한독과대한당뇨병학회가 제정한 제10회 한독학술상 수상.

▲**정광호**(화학생물공학05졸 미국 MIT 교수)= 지난 5월 8일 서울호암아트홀에서 제5회 洪雅基창조인상(과학부문) 수상.

▲**金孝俊**(ASP 1기 BMW그룹코리아 사장)= 지난 5월 23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46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李東基**(IFP 7기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전남본부장)= 최근 삼일정신선양회로부터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보급한 공로로 표창장(봉사부문) 수상.

▲**조정현**(KFL 6기 원광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 원장)= 지난 5월 8일 제4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경로 효행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 수상.

인 사

▲**孫一根**(법학51-64 前한국일보 상임고문·분회 상임부회장)= 그동안 가천대 겸임과 초빙교수로 재직하던 중 석좌교수에 임용.

▲**卞重錫**(경제60-64 대한회계법인 고문)= 지난 5월 14일 한국감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

▲**李在奎**(산업공학69-73 KAIST 석좌교수)= 최근 한국인 최초로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 차기 회장에 선출.

▲**李啓聖**(정치77-81 한국일보 편집국장·분회 논설위원)= 지난 5월 28일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겸 통일문제연구소장에 선임.

▲**崔在哲**(불문77-81 駐경제협력개발기구 대표부 차석대사)= 최근 기후변화 관련 협상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에 임명.

▲**李榮星**(정치79-83 前한국일보 부국장 겸 정치부장·논설위원)= 지난 5월 22일 한국일보 부사장에 선임.

▲**金光德**(정치82-86 한국일보 선임기자·분회 논설위원)= 지난 6월 2일 인터넷 한국일보 상무 겸 뉴스본부장에 선임.

▲**高在鶴**(동양사학82-89 한국일보 경영전략실장)= 지난 5월 28일 한국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姜京希**(외교84-88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분회 논설위원)= 지난 5월 1일 임기 2년의 한국여기자협회 제26대 회장에 선임.

▲**金景旭**(경제84-88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실 국토교통해양비서관에 임명.

▲**蔡耕玉**(경영86-90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분회 논설위원)= 지난 5월 1일 한국여기자협회 감사에 선임.

▲**金希媛**(인류89-93 한국일보 사회부 부장대우·분회 논설위원)= 지난 6월 2일 한국일보 편집국 사회부장에 선임.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최근 사단법인 세계예술교류협회 총재에 취임.

1st IEL & English for Engineering Quiz Contest Awards



- 1등 : 송실대학교 물리학과 김형진, 장학금 200만원과 상패
 - 2등 : 송실대학교 물리학과 신희상, 장학금 100만원과 상패
 - 3등 :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박준우
한국해양대학교 나노반도체 공학과 이규현
성균관 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권오민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오진우, 각 장학금 50만원과 상패
- 이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에서 9명의 만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행 사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5월 22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당신의 미래는 왜 불안한가'를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沈載甲(행정52-56 吉瑛義선생 기념사업회 고문)=최근 '한글과 영어로 읽는 論語- 吉瑛義선생이 고른 논어 명구집'(삶의길

刊) 출간.

▲李順英(회화55-59 한국화가)=지난 5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호주대학교 로렌스 윌슨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국경을 초월하여' 전시회에 산수화 작품('제3비봉 폭포', 'The Three Sisters') 출품.

▲俞東濬(잡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4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5천만명 행복창출 인프라 구축'(부제:행복한 농촌만들기 시범사업)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申秀貞(기악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음대 동창회장)=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이 아름다운 오월

에'를 주제로 음악회 개최.
▲宋哲元(정치61-65 현대사기록연구원장)=지난 5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3 민주화

운동의 회고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5월 28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민사소송제도 동향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金春玉(회화64-68 아름다운 뱀 이사장)=지난 4월 28일~5월 16일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 문화갤러리에서 초대전 개최.

▲張萬基(경대원66-68 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5월 22일 서울 삼성동 서울 컨벤션에서 음악평론가 장일범 씨를 초청, '영혼을 울리는 클래식'을 주제로 제5회 CEO인문학연 개최.

▲李承玲(조소67-71 서양화가)=지난 6월 11~17일 서울 인사동 리서울 갤러리에서 '사랑'을 주제로한 작품 25점을 출품, 여섯 번째 개인전 개최.

▲成心溫(국악71-75 전남대 교수·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에 예술감독)=지난 5월 14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정년퇴임 기념 한정연주회 개최.

▲安智煥(성악73-77 그랜드오페라단 단장)=지난 6월 7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올댓 푸치니, 올댓 오페라' 갈

라콘서트 개최.

▲韓敬九(인류74-78 모교 자유전공학부장)=지난 5월 23일 모교 행정대학원에서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문·

이과 통합교육' 심포지엄 개최.

▲文京海(작곡78-82 누낙문화예술기획 대표)=오는 6월 21일 서울 서초동 사랑아트홀에서 '최고의 선물, 영혼의 찬양' 주

제의 창작복음성가 페스티벌 개최.

▲金炳希(국문82-86 서원대 교수·한국PR학회 회장)=지난 5월 23일 서강대에서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PR의 정체성과 철학'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方文新(경영82-89 SBS 8시뉴스 편집부장)=지난 5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재난보도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金敬喆(한대원83-88 한국교통연구원장)=지난 5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재난의 효과적 방지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權廷宣(기악85-89 피아니스트)=오는 6월 16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등의 작

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河尙希(기악90-94 피아니스트)=오는 6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왈츠와 함께 희망을'을 주제로 피아

노 독주회 개최.

▲朴貞禧(기악91-95 피아니스트)=지난 6월 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The Sound of the Piano'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金志潤(국악93-97 이화여대 강사)=지난 5월 1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報恩之香'을 주제로 피리 독주회 개최.

▲이태정(기악93-97 바이올리니스트)=오는 6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채경애(기악95-99)동문, 첼리스트 이현정(기악96-00)동문 등과 함께 이니스앙상블 정기

연주회 개최.

▲김현지(기악99-03 바이올리니스트)=오는 6월 20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니스트 박지원 씨와 '베토벤 소

나타 III' 협연.

▲정진희(기악01-06 바이올리니스트)=지난 6월 7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이야기가 있는 교과서 음악회' 개최.

▲金慧玲(기악02-06 바이올리니스트)=지난 6월 7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이야기가 있는 교과서 음악회' 개최.

▲安鎬元(HPM 6기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장)=지난 5월 24일 미주총신대학위수여식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 받음.

■ 참가 명복을 빕니다 ■

- ▲朴浚圭(정치44-48 前국회의장)=5월 3일 별세(89세)
- ▲朴泰源(화학공학49졸 前인하대 총장)=5월 15일 별세(88세)
- ▲李熙堯(화학공학52-56 신화건설 사장)=5월 6일 별세(85세)
- ▲韓東元(법학52-56 前언론중재위 사무총장)=5월 3일 별세(82세)
- ▲金用駟(교육행정59졸 前숙명여대 교수)=5월 15일 별세(86세)
- ▲鄭堯一(국문65-72 서강대 명예교수)=5월 26일 별세(68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8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년~2013년 디스플레이서치 기준
세계TV 점유율 1위

곡선으로 인해

디테일은 경이로워지고

입체감은 완벽에 가까워지고

디자인은 더 아름다워지며

컬러는 더 강렬해진다

곡면화질이 만든 압도적 몰입감

삼성 커브드 UHD TV



삼성 커브드 UHD TV 모델 홍명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4등급 | 모델명 : UN65HU9000F

삼성 UHD TV Curved
Ultra High Definition 4K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커브드 스크린
일반 영상도 UHD급 화질로 표현하는 UHD 업스케일링

생생한 입체감을 더해주는 원근 강화 엔진
자연에 가까운 리얼 컬러를 재현하는 퓨어 컬러

삼성전자 SAMSUNG

신 간

저도 양말 정도는
기울 수 있어요
- 朴始鉉·金俊鎬 공저



모교 생명과학부 金俊鎬(생물교육 50-55) 명예교수와 그 아내 朴始鉉(생물교육 54-58) 동문이 첫 만남에서 신혼까지(1956년 3월~1961년 9월) 주고받은 편지들을 그대로 옮긴 책.

첫 데이트의 감격을 고백하는 편지에서, 결혼해서 서울과 공주에 떨어져 살다가 둘째 아이를 낳고 함께 살게 된 것을 기뻐하는 편지에 이르기까지 3백3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1부 ‘서로 마음을 연 두사람’, 2부 ‘희망과 걱정으로 밤을 지샌 약혼에서 결혼까지’, 3부 ‘가난했지만 꿈을 향해 나아간 신혼 시절’ 등 우리는 편지라는 지극히 사적인 기록을 통해 많은 사회적 것들을 접하고 느낄 수 있다.

金동문은 이 책 첫머리에 “불같은 성미의 내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아내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을지 모른다. 몇 날의 지체와 기다림이 나의 사랑에는 매우 유익했다”고 적고 있다. <도서출판 따님刊·값 15,000원>

자기설득,
마음을 치유하는 길
- 鄭寅錫 지음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장을 지낸 한국트랜스퍼셔널학회 鄭寅錫(교육 51-55) 교문이 펴낸 인지행동치료 해설서.

鄭동문은 “자기가 하는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느냐 또는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나 ‘가치관’에 달려 있다”며 “옛말에 마음 속에 뿌리박고 있는 부질없는 집착을 버리면 속세도 仙境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천국과 지옥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역설한다.

또 “자신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잘못된 인식을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시킴으로써 고민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라고 조언한다. <나노미디어刊·값 16,000원>

이준열사,
헤이그에서 평화를 외치다
- 李基恒·송창주 지음



지난 3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를 기념해 이준

아카데미 李基恒(경제 56-60)원장이 부인 송창주 여사와 함께 수필집을 펴냈다. 한국인 최초로 헤이그에 평화박물관을 건립한 李동문은 이 책에 지난 20여 년간 집필한 평화에 대한 글과 알프레드 노벨을 비롯해 다섯 명의 평화운동 선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 1997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에도 평화박물관을 세우자’라는 논문도 함께 실었다. <공옥출판사刊·값 10,000원>

한민족 새 디아스포라
- 申甲澈 편저



수필가인 申甲澈(행정 56-60 재외동포신문 자문위원)동문이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의지로 삶을 개척해가면서 국내외에서 뛰어나게 활동했거나 현재도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각계 선인들 중에 멘토(Mentor)가 될 만한 이들의 이야기를 간추려 엮은 책.

이 책에는 이 시대에 국내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근래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시대정신과 역사관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고국의 계속적인 번영 속에 그들의 해외에서의 삶이 성공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갈망하는 편지자의 심경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푸른사상刊·값 15,000원>

나를 기다리는 설렘
- 李康男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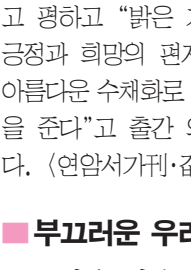


이 책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금융연수원장 등을 지낸 李동

문 자신의 삶을 통해 접한 문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와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해인 수녀는 추천사에서 “일상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행복을 꿈꾸는 저자의 인생철학이 진솔하게 담겨 있는 책”이라고 평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한 긍정과 희망의 편지로,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출간 의미를 부여했다. <연암서가刊·값 15,000원>

부끄러운 우리시대의 시
- 吳新우 지음



吳新우(본명 吳龜鎭 조선공학 65-69)동문이 ‘종북좌파, 잔치는 끝났나’를 부제로 시집을 펴냈다.

吳동문은 이념과 정치에서 중립적일 필요는 없으나 휴머니즘을 근본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가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아반”이라 한 데서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선거 공해’, ‘국민대통합의 지름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누구든 할 수 있는 자리가’, ‘학원서 밤새는 평준화’ 등 시대적, 사회적 비평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시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세종출판사刊·값 8,000원>

미안해
- 蔡英仙 지음



미주문인 협회·우리사회 회원인 蔡英仙(국어교육 71-75)동문이 ‘사랑한다면’에 이은 두 번째 시집을 펴냈다.

2012년 미주문학 신인상(시부문)을 수상하며 등단한 蔡동문은 이 책에서 자연과 인간, 너와 나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래서 곱씹된 세계가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긴밀하게 결합되는 감성적 세계의 복원이라고 표현한다.

蔡동문이 이 시집에서 자연에 대해 ‘미안해’라고 한 말은 단지 蔡동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들이 저질러 온 자연에 대한 학대와 파괴로 인해 자연이 그 순수성을 잃고 신음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인간마저 병들게 된 사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참회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창조문학사刊·값 10,000원>

공연

徐惠英 피아노 독주회
- 7월 2일 예술의 전당



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모교 대학원을 거쳐 미국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徐동문은 이날 다케미츠, 나진원, 멘델스존-헨젤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李珍和 피아노 독주회
- 7월 5일 예술의 전당



사이틀홀에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李동문은 이날 바흐,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음연 3436-5929>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黃壽淵 옮김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 72-79) 교수가 오스트리아 학과 거장 이즈리얼 커즈너 (Israel Kirzner)의 책을 번역했다.

커즈너는 이 책에서 신고전학과 의 완전 경쟁 균형 접근법에 내재한 결함들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오스트리아학파의 기업가적 발견 접근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실제 적용에서도 신고전학과 접근법이 오류와 기업가적 발견 접근법의 타당성을 광고, 반독점법, 주류 후생 경제학, 사회주의 경제,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걸쳐 잘 설명해준다. <도서출판 리버티刊·값 10,000원>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
- 朴介成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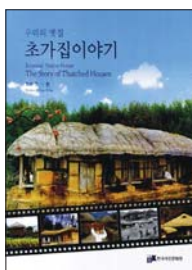


엘리오엔컴퍼니 朴介成(경영 85-89) 대표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팀장으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부조직개편을 총괄한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가이드북 겸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장에서는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이 가져야 할 생각을, 2장에서는 존경받는 기관장 10명을 선정해 그들의 모범 사례를 살펴봤다. 3장에서는 공공기업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할 기관장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줘야 할 역할을 제시했다. <엘리오엔컴퍼니刊·값 20,000원>

우리의 옛집
초가집이야기
- 李一魯 지음



한국방송 기술산업협회 李一魯(AIC 1기)회장이 1970년대 초부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직접 촬영해온 초가집 작품들을 한 권에 담았다.

역사는 흘러가지만, 기록은 남는다. 특히 사진은 사실에 입각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담고 있어 사진예술을 기록예술이라 말할 수 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이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때 그때의 우리들이 삶의 기록으로서도 그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초가집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리기 위해 여러 문헌을 참고해 초가집의 역사, 초가집의 종류, 지방별 초가집 특징 등을 기록함으로써 초가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한국사진문화원刊·값 78,000원>

**The-K가 만드는
바르고 정직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세요**

바르고 정직함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
The-K가 만들어가는 교육가족의 오늘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국민기업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The-K 손해보험 educa
- The-K 에디앙상조
- The-K 호텔앤리조트
- The-K 제주호텔 RAMADA PLAZA
- The-K 소파아그원 소파아그원
- The-K 교직원나라
- The-K 서드에이지
- The-K 저축은행

World Top quality bags & cases for Music & Sports

Chonwoo Corp.
Chonwoo@hotmail.com Tel: 82-2-420-5094 Fax: 82-8-423-6154 www.chonwoo.co.kr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진철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승무 및 자문 업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진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진 철**

Mobile : 011-696-5051 / E-mail : bsdw@chol.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6-3 법조빌딩 303호 Tel : (02) 2055-0112~3 Fax : (02) 2055-0134

♠ 더원결혼정보
17년 名家 행복출발의 새 이름

☎ 1588-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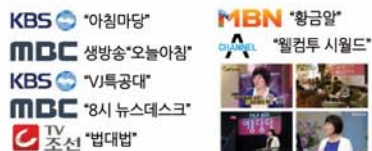
홍유진 커플매니저 / 더원결혼정보
한국대표 커플매니저 19년 경력 중매고수
1만건 상담 1,000쌍이상 성혼
KBS 아침마당, MBN 황금알 등 중매고수 출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서초 080013

대한민국 1등 결혼 약속 결혼, 더~원 해요

• 서울대 동문 및 동문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V속 중매고수들



17년 노하우 大賞

- 고객감동브랜드 大賞 3년 연속 (2014~2012) 결혼정보 1위
-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2012) 결혼정보 1위
-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2011) 결혼정보 1위
- 올해의 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와튼스쿨 MBA 동문
18만 대한민국 ROTC중앙회
KAIST 동문

posco
포스코에너지

www.poscoenergy.com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에너지

태양과 바람 같은 자연에 새로움을 더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포스코에너지!

지구의 에너지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 발전: LNG복합발전 | 부생복합발전 | 석탄화력발전 • 신재생: 태양광 | 풍력 | RDF(생활폐기물 연료화 발전) | 하수열 • 연료전지: 연료전지 제조 | 연료전지 발전소 운영

Double Chicken Originator
Nosigi

www.9922.co.kr



대한민국 최다 친인척가맹
프랜차이즈 공식 인증



중소기업청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호식이두마리치킨전속모델
개그맨 김기리

Double Chicken Originator
Nosigi

주문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688-9922

since 1999 두마리치킨의 원조

호식이두마리치킨

- 전국적인 물류센터 개설
전국적으로 3개의 물류창고와 본계 배송센터(최상의 품질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첨단 냉장·냉동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1일 콤비시스템 구축
일일 콤비 시스템 (daily chain system)을 통해 매출과 신선도의 맛을 365일 유지합니다.
- 인터넷 발주·배차 시스템
인터넷과 ARS로 동시에 주문, 편의를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인 배차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맛도 두배! 양도 두배! 기쁨도 두배!!
맛과 양과 고객감동에 성공함으로써 치킨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
- 99%가 아닌 100%하림닭사용
모든제품 하림에서 100%책임감급 전체인점에 하림닭 사용인행태 부착
- 타브랜드에서는 절대 찾아볼수 없는 친인척간 체인점
먼저 창업한 점주님이 친인척이나 아주 가까운 친한사람에게만 권유

KRI 한국기록원

대한민국 최다 친인척 가맹 프랜차이즈
한국최고기록 공식인증!!

전 체인점 750여개 체인점 중 먼저 창업한 점주님이
권유하여 늘어난 체인점이 무려 240여개나 됩니다.

체인점문의 : 080-992-9922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4년 3·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4. 3. 4~4. 20) · 일반(2014. 3. 4~4. 21)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회장 徐延和= 1천만원
△부회장 姜寅求= 1백만원

상임이사

△李賢秀 농생대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병문 사대78
△강영근 음대81 △고영소 문리56
△공운수 HPM30 △김경애 미대68
△김경진 문리71 △김관식 문리56
△김규현 치대81 △김대형 사대61
△김병준 사대85 △김상덕 의대93
△김상복 GLP21 △김선운 경영92
△김성환 공대83 △김영태 SPAR20
△김용섭 의대84 △김인만 법대81
△김재명 AFB10 △김재성 사대82
△김재협 법대75 △김종렬 치대73
△김종수 ASP17 △김지연 HPM31
△김진왕 ACAD77 △김진왕 AIP23
△김창민 인문84 △김태우 치대94
△김태일 치대75 △김학제 공대65
△김홍창 경영75 △나성균 경영90
△남기민 문리69 △남민우 공대80
△노태욱 공대69 △민병인 사대80
△박상채 HPM29 △박영구 AIP31
△박원빈 HPM29 △박주하 사회77
△박준영 HPM1 △박준우 법대72
△박찬백 공대67 △박찬의 ACPM7
△배병찬 ACAD72 △배성철 AFB7
△배재흠 공대70 △배지영 의대94
△변희찬 법대78 △서동우 법대81
△서원정 AMP74 △서진원 AFP5
△서형우 大院00 △송경순 사회69
△송희문 ACPM9 △신명수 상대60
△신종현 법대69 △신태식 APC11
△신희철 AMP57 △여준구 공대81
△오명돈 의대77 △오문석 사회81
△오정현 AFP3 △유영면 공대72

△유정호 공대88 △윤진희 GLP18
△이 강 AIP47 △이경태 공대85
△이경호 AIC7 △이공욱 사대71
△이능규 공대69 △이대봉 AMP36
△이동호 ASP6 △이동훈 AMP35
△이복환 사대70 △이봉서 상대55
△이상산 공대80 △이선주 의대90
△이성태 ALP15 △이세창 법대57
△이영호 ASP25 △이인복 법대74
△이재민 사대79 △이준표 SPAR21
△이차복 사회87 △이효진 AIP15
△장병덕 사대53 △전성희 법대79
△전택수 사대71 △정경전 의대66
△정복주 음대66 △정의홍 의대75
△정인진 법대72 △채승진 미대81
△채창원 AMP65 △최광은 AMP73
△최미경 자연83 △최성호 공대80
△최완주 법대77 △최우석 HPM30
△한도희 AMP57 △한형실 음대77
△허재현 保院99 △현정택 상대67
△홍상욱 농대83 △황각규 공대73
△황규전 의대74 △황종구 공대56

〈일반〉 △강경은 사대59
△강인희 치대77 △강진욱 사대83
△고상민 사회80 △곽창욱 법대58
△김 석 環院02 △김경희 SPAR24
△김기훈 공대06 △김대성 AIC19
△김두일 SPAR24 △김명환 법대61
△김배철 인문75 △김범용 의대53
△김병철 공대78 △김상호 공대88
△김성영 SPAR24 △김성학 AMFR30
△김영석 법대86 △김왕기 SPAR24
△김용환 사회78 △김은정 사회02
△김재년 상대68 △김중순 齒院07
△김중준 인문93 △김주숙 SPAR24
△김준수 공대03 △김지윤 공대86
△김진영 SPAR24 △김진희 자연97
△김태영 자연11 △김홍구 공대80
△김효진 농대03 △김희덕 SGS29
△김희제 공대52 △나명철 약대69
△나용철 공대85 △나정환 사대54
△남동우 문리64 △노관우 공대07
△도종수 사회71 △류해일 SPAR24
△맹동열 SPAR24 △문옥화 AMFR30
△민병렬 ASP13 △박두선 자연01
△박소현 간호93 △박수진 미대03
△박영신 간호70 △박운선 사회87
△박인규 ABP10 △박장호 사회85
△박창환 법대07 △박창렬 SPAR24
△방선영 미대08 △백 린 법대59
△백희정 약대07 △서두원 공대06
△서현진 법대57 △서호원 사회98
△석철기 ABKI3 △손내선 상대57
△손수임 공대06 △송상훈 치대96
△송석두 인문81 △송지윤 농대74
△송창섭 의대53 △신수경 SPAR24
△신정수 자연77 △신현승 사회78
△신현철 상대63 △심정환 공대89
△안경수 AMP76 △안영미 保院82
△양금희 SPAR24 △양미경 의대80
△양서영 保院96 △양용선 공대85
△양중의 약대66 △여정미 SPAR24
△염광원 의대63 △오영진 법대65
△오영희 SPAR24 △유병욱 공대97
△유원상 ACPM9 △유충근 GLP17
△윤병철 법대84 △윤자호 SPAR24
△윤제철 상대66 △윤제춘 사회79
△윤종구 의대52 △윤호순 大院91
△윤희식 SPAR24 △이경화 음대77
△이광원 AMP76 △이단비 음대03
△이래운 SPAR24 △이명영 ASP24
△이민성 문리54 △이민호 SPAR24
△이병강 SPAR24 △이병주 공대06
△이병태 치대70 △이봉현 大院84
△이상화 법대05 △이석운 공대86
△이승욱 수의67 △이영면 大院84
△이재홍 의대80 △이정자 문리59
△이종명 AMP76 △이종혁 사대76
△이주수 공대90 △이준현 자연03
△이창희 SPAR24 △이태극 SPAR24
△이현석 공대99 △이호수 APC18
△이희범 농대03 △이흥권 법대87
△이희용 치대89 △임덕순 SPAR24
△임지혜 수의96 △장경준 경영74

△장덕수 SPAR24 △장주욱 AFP12
△장지현 공대06 △장해익 ACAD34
△전상학 사대79 △전성수 AMP70
△전수남 사대59 △전영배 사회76
△정기철 상대56 △정시화 AMP60
△정정진 大院77 △정평구 치대58
△정현수 SPAR24 △정호열 법대74
△조성구 공대72 △조연환 SPAR24
△조재환 상대72 △지홍원 법대58
△차근희 농대83 △차중익 의대69
△채규남 공대49 △전광찬 AMP28
△최 철 ACPM9 △최두호 의대76
△최성락 사회79 △최연종 상대56
△최정섭 농대74 △최대진 법대06
△최현숙 농대65 △최흥식 농대76
△추영일 법대61 △하명근 상대66
△하상완 치대64 △한상길 SPAR24
△한승호 공대04 △한원식 농대67
△허광욱 사대59 △허윤서 HPM28
△현중섭 농대65 △홍명아 사회82
△홍일표 법대63 △황소용 SPAR24
△황정혜 약대01

이 사

◆인문대 △강창일71 △김동철78
△문상원72 △박수현83 △변우식77
△서형배74 △손예철69 △유 식79
△이영인77 △이재학82 △임운봉64
△정진기86 △한봉희77 △황대순78
◆사회대 △곽대환81 △김동선76
△김승희87 △김정환90 △남기섭76
△박종철90 △박주태85 △박찬욱72
△원영준90 △이동현82 △이복희71
△이재덕73 △장홍근81 △전상현91
△정석구77 △주순식73 △주진혁77
△최익순73 △한병송85
◆자연대 △강경관70 △김규중72
△이상구81 △이은용72 △이준영81
△임완중87
◆간호대 △김혜경88 △성승현74
△조동란66
◆경영대 △구지일86 △김근수77
△김석호77 △김연경79 △김영렬79
△박기환69 △서동규84 △서정희78
△유태우79 △전용주86
◆공대 △강희태58 △김광욱62
△김동진68 △김석홍81 △김영중76
△김원배55 △김원수61 △김재수77
△김정선81 △김진인94 △김주홍47
△김진기87 △김진영68 △노철균70
△문석형50 △문창환75 △민경식50
△박영길78 △박종렬71 △박종혁96
△박현철85 △박효대76 △백명철79
△백상엽86 △변동필75 △변순천85
△서광벽73 △서남규69 △서문호68
△설재훈74 △손경업65 △손태원72
△송광호84 △송배원75 △신동성64
△신운승74 △안상형69 △안영구65
△여인갑64 △염사연64 △오창석69
△우진태71 △원종환52 △이경환83
△이계수63 △이동춘53 △이동희85
△이병하69 △이봉환68 △이용경60
△이원도59 △이정일61 △이종길87
△이종남73 △이종호70 △이창호55
△장세일59 △장창선87 △정순천66
△정태현73 △조창현84 △차근오76
△최상현77 △최영식47 △최현수85
△최홍영69 △한재성79 △현정훈76
△홍광표54 △황 철71
◆농대 △곽지상52 △김상도69

interbiz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 02-799-7979

△김일종69 △김준영84 △문동준70
△박수철82 △박한수82 △배정길61
△서승덕55 △신용석61 △안수구73
△연장식84 △유용률66 △이임영81
△이혜근67 △최동하71 △허길행65
△홍순명68 △홍행홍62
◆문리대 △강승렬62 △김 명67
△김수진57 △김영일62 △남기흥67
△민영기57 △박영배65 △박용안57
△변 형61 △양이훈65 △양철주59
△엄영진63 △오영일61 △오완영59
△오재희53 △유보일60 △이근수71
△이상직66 △이영래60 △이영록66
△이원홍52 △인태오57 △임병석54
△조창화57 △최정도62 △한영우57
△한태길69 △황경호54 △황병선64
◆미대 △강신옥86 △박재호59
△함혜란83 △홍현중04
◆법대 △강승준85 △구충서71
△권영상75 △김광훈79 △김상균77
△김석재88 △김승진57 △김영수79
△김영일60 △김영재57 △김완섭65
△김응열59 △김이수72 △김익하60
△김종일52 △김진관71 △김진만60
△김창복51 △김창희82 △김현산54
△김형렬83 △김흥면72 △류시열57
△문영길55 △박부찬56 △박성귀71
△박승문78 △박영수52 △박용상63
△박원진51 △박일환69 △박준서58
△박형남78 △박환승83 △성패문60
△손기식68 △신원도87 △신은철81
△신현욱66 △여상훈75 △오시열75
△오연균76 △윤재열50 △윤호일61
△윤흥근79 △이건종72 △이기웅50
△이덕모71 △이민찬55 △이순기03
△이영욱52 △이우근67 △이재철70
△이정훈89 △이종상54 △이진배65
△이태운68 △이태창61 △이형진81
△전명호86 △정광우61 △정덕흥68
△정용달81 △제차룡60 △조동주53
△조영삼81 △조정욱90 △조지만90
△조해근78 △지성우66 △채 윤78
△최기선64 △최상엽56 △최신석59
△홍진태52 △황봉환73 △황성일56
△황영선55 △황이연55
◆사대 △김봉근60 △김용균65
△김종원61 △김종찬87 △김종화68
△김찬균54 △김충언58 △김학천59
△민흥기59 △박익두64 △박종현70
△박찬구56 △방재욱68 △변재익61
△성기훈71 △손영목60 △신차균68
△신찬우48 △신하영58 △안승룡75
△엄영주66 △유승연73 △윤규태65
△윤용섭61 △윤익모62 △이기준67
△이노연58 △이상요74 △이진구71
△정응근63 △최병주56 △최준명60
△하상기74
◆상대 △강승구65 △구선희56
△구정화57 △권희구56 △권희택56
△김경모61 △김대중66 △김승훈68
△김창진58 △김형만52 △문영도50
△박 간68 △박태하58 △박해룡58
△손상모53 △송필호68 △엄수명61
△오강욱56 △윤우진61 △윤종현44
△이승웅60 △이용진68 △이인덕67
△임종두61 △장택신71 △전문준64
△전창수57 △정태욱62 △최경식59
△최도성70 △최명규46 △최종민61
△표계영58 △표학길66 △한병무59
◆생활대 △박복순70 △여의주82
△최영선71

◆수의대 △김성수64 △송남훈64
△송치용83 △예재길72 △윤화중54
△이 완82 △이 준62 △이수창61
△최윤주00 △하태은80
◆약대 △김상조54 △김영택61
△맹호영81 △장석윤79 △지현석56
△최진곤77
◆음대 △강낙영67 △박정자60
△윤명순79 △이경숙50 △조창연66
◆의대 △강권철69 △강대희81
△강세윤59 △고행일64 △김민석84
△김곤식53 △김동은52 △김소연74
△김영균43 △김용봉70 △김진조45
△김현우64 △노문진90 △맹국영68
△목정은60 △박주배68 △박춘식72
△양솔문00 △양승오75 △오승환56
△유경상64 △유세화65 △유현덕77
△이대규53 △이봉화75 △이부영52
△이의돈61 △이진호70 △임태환70
△정범영94 △정을삼60 △조남혁70
△최혜령03 △추광철60 △허준평70
△홍창의45
◆치대 △김기현56 △김병찬69
△김장현77 △김지호59 △김학선80
△김홍석57 △민병화74 △박상균66
△박찬유65 △백성기71 △서성구74
△양재호64 △유태영63 △이상표77
△이윤상59 △이준규66 △이진결77
△임병채80 △임성수60 △임종호82
△정병우83 △최성근65 △한광수72
△허재식93
◆대학원 △권병남81 △김기혁85
△김동식85 △서수원89 △선흥규86
△이시운81 △이희성81
◆경대원 △박원봉68 △조현국73
◆보대원 △박원길65 △유승진99
◆신대원 △김우룡71
◆행대원 △공병영90 △곽대훈78
△권기성77 △김동수80 △빈금환70
△최상철64 △최석식83
◆환대원 △박상락84 △박형석74
◆AMP △김기용28 △김봉규20
△김수환15 △마용득75 △박건현70
△박인상28 △박정욱72 △서호근60
△서효중3 △손태원75 △송학성63
△안종표36 △유병운23 △유시수25
△이순구63 △이윤로50 △이현구52
△정환진47 △최세필54 △최재선9
△한형수47 △황의영59
◆AIP △강석대15 △권오열22
△김서규40 △김윤중31 △김학규26
△김후근17 △노완구18 △박상수42
△박양신20 △백종환47 △유길상9
△윤백중4 △이기선47 △이기태2
△이병호28 △이상희15 △이의현20
△조성환21 △허정수46
◆ACAD △민병운56 △신동만11
△안장돈76 △이달화24 △이영희57
△이종간55 △전병순42 △정진문65
△조흥규26 △최형태68
◆ABP △김성일15 △김수동32
△김정택23 △김현식20 △박준명12
△임경상9 △정공훈22
◆SGS △권오신5 △김광두3
△김승규7 △김희철12 △박종인5
△원홍순15 △이강용28
◆APC △배병현11 △이용배5
△함춘조2
◆HPM △김광화9 △김동량27
△박중엽29 △박진희28 △배영봉14
△안호원6 △이재우23 △이태수6

△정회순14 △최종환10 △한훈섭10
◆AMPP △방석관1
◆AIC △이강록13 △이경의5
△이일로1
◆AFB △김병관12 △김호운4
△류형우9 △정일진10
◆AMPFRI △강정목9 △김태호22
△서강인30 △장석철5
◆ACPMF △김금융9 △민평기4
△이종현10 △정주영10
◆GLP △구윤관27 △권갑현18
△김종길19 △김창승21 △조복기27
△허영무23
◆ALP △김민성16 △김해연15
△문정림18 △허충화18
◆SPARC △김달수1 △김태근6
△김해명13 △방용수16
◆AFP △정일채8
◆ASP △김상근24 △박상호16
△진영호20
◆BCP △박상원10 △박중우12
△신철수9 △오영호2
◆ABKI △최영만3 △최창욱3
△현상섭2
◆KFL △박인아12

일 반

◆인문대 △김 영88 △김소희02
△김시곤80 △김치하84 △노민혜08
△박상연07 △박창수05 △성기혁06

△이승철75 △이주영05 △장영덕78
△최종윤03 △편일범86 △황효성02
◆사회대 △고용준08 △권용신86
△나규철84 △문 철11 △문지혜06
△박덕환72 △박순일00 △박종현83
△서인석92 △신상조86 △정국환73
△정주성03 △최병철93 △최창희03
△홍민영96
◆자연대 △김광우00 △김기표00
△김대환02 △김병수74 △김영석85
△김용근74 △김윤호02 △김지수03
△김진주11 △김한결11 △노정현04
△박영일02 △박용진05 △손승민08
△이동영01 △이슬기전04 △이희승84
△정용준01 △조영길74 △조현진01
◆간호대 △박현자63 △이선미06
△이옥의11 △조익준04 △최진아07
△한영자66
◆경영대 △고두형01 △서학수82
△안대훈04 △윤병은72 △이난샘99
△임정오68 △조성훈79 △황동철75
◆공대 △강경택52 △강영식64
△강환구75 △고근희54 △고순민98
△고재경06 △구형모79 △권두섭57
△김광은63 △김구면94 △김명준03
△김병훈98 △김성권97 △김세진47
△김인석55 △김인용74 △김재수91
△김정수67 △김정혁00 △김종순54
△김주영55 △김주찬75 △김주하01
△김창현63 △김철순53 △김태녕86
△김태문55 △김현수82 △김현중70

△김혜수64 △김홍근76 △남궁석52
△남기동43 △노승규82 △노총래62
△라종민05 △문혜진11 △민철기56
△박국진05 △박기철72 △박노상57
△박대철72 △박민서79 △박범우06
△박상재84 △박상진69 △박용성95
△박용승54 △박일재78 △박종인97
△박종태61 △박주태79 △박찬민57
△박찬용06 △박철립59 △박현우07
△박형순60 △배종서82 △배준일98
△백선욱62 △백영방55 △백인경08
△서두석71 △서민우00 △서세현65
△성운준05 △성정환03 △손계욱70
△손연규75 △송기선03 △송상현67
△송수영51 △송슬지05 △송영찬06
△송정우08 △송종은95 △신동수73
△신일진67 △신현식50 △심용기53
△안석기03 △안재목87 △양동률50
△양희진02 △엄성희04 △원재혁58
△유슬기11 △유일상57 △윤 백78
△이경태53 △이규생57 △이규재44
△이규화68 △이근수54 △이근환05
△이기설47 △이동욱06 △이상경68
△이상순67 △이성기58 △이승욱56
△이요한07 △이원구85 △이원복50
△이윤식55 △이인호82 △이인희56
△이재범01 △이정훈06 △이창복56
△이창주97 △이태경10 △이혁재66
△임동조71 △임현웅69 △임형준04
△장동근55 △정명진04 △정상열72
△정석현51 △정소연11 △정진경48

반부패에 앞장서는 청정수협

www.suhyup-bank.com 고객센터 | 1588-1515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해양수산
대표은행

21세기 해양수산시대!
우리에게도 세계금융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해양수산전문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Sh수협은행이 있습니다!

Sh 수협은행

△정해길⁶⁵ △조민욱⁰² △조용준⁰²
△조장하⁵⁷ △조재준⁰² △조형태⁰⁰
△주종웅⁰⁶ △지석배⁹³ △차건호⁰³
△차석배⁶³ △최신영⁰⁸ △최효병⁵⁹
△최희정⁶¹ △하종민⁰⁵ △한용희⁰⁶
△한정빈⁶³ △한현철⁰⁵ △현 철⁰⁵
△현덕훈⁷⁸ △홍성범⁵⁶ △홍성재⁵²
△홍진표⁵⁹

◆농대 △강광희⁵⁷ △고일웅⁶¹
△김두만⁵² △김문규⁴⁹ △김문수⁵⁴
△김영삼⁵⁸ △김원훈⁴⁹ △김재인⁵⁸
△김재인⁶² △김재학⁵³ △김정빈⁶¹
△김태규⁶¹ △김택구⁶³ △김학기⁶⁵
△김형림⁰³ △김효석⁰³ △남승우⁷⁹
△박 호⁵⁹ △박선영⁶² △박순석⁵⁰
△박장철⁵³ △박준관⁰⁴ △박창용⁵⁵
△박창호⁵⁸ △박형훈⁵⁵ △백응현⁶⁴
△변양석⁵⁹ △서완수⁵⁸ △송영달⁵⁵
△신상혁⁵⁶ △심상래⁰² △심상우⁵⁷
△안장조⁶³ △오수영⁵⁹ △오흥석⁵⁰
△우창명⁶⁶ △원인희⁷³ △유기성⁵⁶
△유병윤⁵⁴ △윤동면⁶⁵ △윤인화⁵⁵
△이두황⁷⁵ △이병천⁵⁵ △이시규⁷³
△이원희⁵⁰ △이을룡⁵³ △이태윤⁰³
△이택구⁵⁵ △이현우⁵¹ △이홍석⁵²
△장세종⁶⁶ △장운용⁵¹ △전석수⁶²
△전성익⁵⁵ △전현기⁶⁴ △정진욱⁵⁶
△정태원⁵⁷ △최나리⁰⁷ △최무재⁵³
△최영주⁷⁵ △한상익⁵⁷ △한정수⁵¹
△한잔백⁵² △허근영⁸⁷ △허정수⁶⁰
△홍순홍⁵⁸

◆문리대 △강명순⁵⁹ △강석명⁵⁶
△강영원⁷⁰ △구자흥⁶³ △권익식⁶⁷
△김규원⁵⁷ △김기근⁶⁹ △김기현⁵²
△김남진⁵⁹ △김동일⁵⁸ △김석산⁵⁸
△김영성⁶² △김영식⁶⁴ △김유석⁵⁵
△김일송⁶³ △김정식⁶² △김종엽⁶¹
△김진석⁵⁹ △김홍철⁵³ △나미례⁶⁵
△박용배⁵⁹ △박정일⁶¹ △박형달⁵⁵
△박희주⁵³ △방재환⁶⁶ △백재현⁴⁸
△변광수⁶⁵ △서병현⁵³ △서세창⁵³
△성만용⁵³ △신장효⁵⁹ △신효순⁶¹
△심수보⁶² △양영수⁶⁷ △오인환⁵⁸
△오현승⁶⁵ △온준철⁶⁴ △우창웅⁵²
△원용우⁶⁰ △원인기⁶⁶ △윤용진⁵⁹
△윤흥로⁶² △이 강⁵⁶ △이광열⁷¹
△이규일⁵³ △이근남⁶⁸ △이범주⁶⁴

△이상근⁵⁹ △이양길⁶⁰ △이연희⁵¹
△이영식⁵¹ △이재술⁵⁷ △이재승⁵⁹
△이종규⁵⁶ △장영태⁶⁴ △정기인⁶⁰
△정서구⁶⁵ △조 흥⁶⁶ △조남학⁶¹
△최명근⁵⁷ △최봉석⁶⁹ △최선록⁵⁹
△최연균⁶⁷ △최영길⁵⁸ △최인일⁶⁸
△최정호⁵² △한철순⁵⁸ △홍승국⁴⁶
△황의박⁶³

◆미대 △강대운⁵⁵ △권은솔⁰³
△길조관⁷⁴ △김영자⁶³ △배경희⁰²
△서주희⁸⁹ △송희원⁹³ △이지호⁰⁷
△정사원⁵⁸ △정선화⁵⁶ △조대병⁷⁰
△최은규⁷⁷ △현숙자⁵⁶ △홍경희⁶⁶

◆법대 △강형춘⁵⁴ △금종석⁵⁶
△김광현⁵⁴ △김국열⁹² △김기석⁵⁹
△김기형⁵⁰ △김길영⁵¹ △김남식⁵⁷
△김동규⁰³ △김상욱⁶⁹ △김선병⁸¹
△김세돈⁷² △김영균⁵² △김영삼⁶¹
△김윤철⁴⁸ △김진병⁸⁵ △김철수⁹⁰
△김향경⁶⁴ △김해산⁵⁷ △남재우⁵⁹
△박상화⁹² △박영석⁵⁶ △박영순⁰⁷
△박장우⁶⁶ △박재현⁰⁰ △박천서⁵⁶
△배찬린⁵⁸ △신 신⁵⁵ △신갑철⁵⁶
△안남규⁵⁰ △오진환⁷⁵ △유덕택⁵⁴
△유병순⁵⁵ △유재성⁵⁹ △윤금중⁴⁸
△윤일영⁵² △이 준⁷⁰ △이기환⁵⁶
△이명순⁸⁵ △이상철⁷⁹ △이상갑⁵⁵
△이양순⁵⁵ △이원택⁶¹ △이재원⁷⁷
△이체주⁵³ △이태희⁵⁸ △이한규⁵⁷
△장순욱⁸⁴ △장준봉⁵⁵ △정동현⁹⁹
△정인숙⁸¹ △정인창⁸³ △정준호⁸⁵
△정혜경⁰³ △조주순⁶¹ △지원훈⁶¹
△진상훈⁹³ △천경송⁵⁷ △최광률⁵⁴
△최영룡⁷⁸ △최은배⁸⁵ △최정운⁸³
△최준기⁵⁷ △한상술⁵⁸ △한원도⁵⁵
△함민식⁵⁹ △허만조⁶⁴ △허용석⁸³
△현종찬⁷⁴ △홍기인⁵⁵ △홍진영⁰⁰
△황선무⁵⁸ △황영욱⁵⁹ △황인구⁰⁰

◆사대 △강철인⁶⁶ △김경은⁰⁰
△김경자⁵⁸ △김계연⁶⁸ △김기근⁵²
△김병수⁵⁹ △김상욱⁴⁷ △김수자⁶⁸
△김용길⁵⁴ △김종석⁵⁵ △김준호⁵⁰
△김화인⁰⁴ △나병삼⁶⁴ △남기종⁵⁴
△당현숙⁶⁰ △박성수⁶¹ △박인호⁵³
△박준진⁵⁷ △손욱호⁷² △손종국⁵⁵
△신각범⁵⁴ △인영숙⁵² △오병호⁹³
△유민영⁵⁷ △유자효⁶⁸ △이광용⁶¹

△이병선⁵¹ △이병준⁰³ △이상경⁶⁵
△이상재⁵⁹ △이석주⁶⁰ △이성묵⁶⁷
△이시정⁵⁴ △이영주⁵⁶ △이용현⁵³
△이운우⁶⁴ △이제용⁶⁰ △이창호⁷¹
△이태웅⁷¹ △임광수⁶⁸ △임지연⁹⁷
△전병희⁸⁶ △정두영⁶⁰ △정복래⁵⁴
△정봉섭⁶⁵ △정은호⁵⁹ △정찬식⁶⁵
△조남진⁵⁸ △조민식⁵⁵ △조의래⁵⁶
△주운수⁶⁶ △지동소⁵⁵ △천낙경⁵¹
△최길순⁴⁹ △최윤경⁸³ △최정림⁶²
△최정현⁶⁴ △추연화⁶² △함희동⁴⁶
△현재복⁵⁶ △홍성자⁶² △황광수⁵⁶

◆상대 △강상기⁵³ △강원구⁵⁴
△권기봉⁵⁴ △권민식⁶⁵ △권영욱⁵⁴
△김동휘⁴⁸ △김승경⁵⁵ △김영하⁶¹
△김재수⁵⁸ △김종해⁵¹ △김주호⁵⁰
△김형영⁵⁶ △민병태⁵² △민병태⁵⁸
△민병훈⁵⁶ △박광구⁵⁶ △박광철⁵⁶
△박상호⁶³ △박종환⁴⁹ △배종섭⁵⁸
△백기환⁵³ △백치곤⁴⁹ △손경수⁵⁶
△손명환⁶¹ △손성철⁵⁰ △송인상³⁵
△송주식⁴⁶ △신문철⁵² △염재현⁶⁵
△오기화⁵⁷ △오세환⁶⁸ △우일균⁵⁰
△유재홍⁶⁸ △윤정희⁵⁴ △이건재⁵²
△이명기⁵⁹ △이성위⁶¹ △이영호⁴⁶
△이태중⁵⁰ △임동승⁵⁶ △전완식⁶⁰
△전인홍⁵⁴ △정봉수⁶⁶ △정재두⁵³
△조문제⁵⁹ △최익재⁶⁸ △허재경⁵⁶

◆생활대 △김경애⁶⁶ △김남미⁷³
△김옥경⁷⁶ △김은정⁰⁸ △김혜경⁸⁵
△박주희⁸⁵ △신은철⁷³ △오현숙⁶⁸
△윤승건⁰⁵ △이아름⁰⁵ △조혜자⁶⁰
△최규순⁶¹

◆수의대 △고성욱⁵⁷ △구본훈⁵⁴
△김기석⁹³ △김명석⁰⁸ △김배원⁶⁰
△김상돈⁴⁴ △김용대⁶³ △김종건⁶⁵
△박기환⁴⁹ △박만규⁵⁰ △박유순⁶³
△박용복⁴⁸ △석호봉⁶³ △유승창⁶³
△윤대걸⁵⁸ △이학범⁰⁶ △임준기⁷⁷
△조병왕⁶¹ △최성호⁵⁷ △홍순국⁵⁴

◆약대 △공영석⁵⁷ △김영광⁷²
△김용정⁵⁸ △김은영⁸⁹ △김혜자⁵⁵
△김희중⁵⁹ △박경래⁵⁷ △박지인⁰⁰
△박창서⁶⁷ △배종철⁶⁹ △서남현⁵⁹
△서성수⁵³ △심은숙⁵¹ △이동악⁵⁷
△이만재⁵⁶ △이병국⁵⁵ △이원재⁵³
△이재현⁷⁷ △이홍래⁵² △정선오⁹⁴

△정연심⁵⁴ △조미정⁸⁷ △주준대⁵⁴
△최경인⁰⁷ △최경희⁵⁴ △최은실⁸³
△한병훈⁵²

◆음대 △김난아⁹¹ △김영희⁵³
△방영호⁸⁰ △안성준⁶⁵ △이신희⁷⁰
△이영민⁰¹ △임경하⁰⁶ △임정선⁵⁷
△장창환⁵⁸ △최예니⁰⁷ △홍순미⁷¹

◆의대 △강내열⁵⁶ △김원희⁵⁶
△박지명⁰⁸ △박현승⁷⁷ △송익훈⁴⁵
△오경균⁶³ △오세윤⁵⁹ △왕영종⁵⁴
△유인호⁵⁴ △유정주⁰⁵ △이동욱⁰³
△이원기⁵⁶ △이재식⁸¹ △이종주⁵⁷
△정진우⁴⁵ △조한익⁶¹ △주진순⁴³
△최현규⁵²

◆치대 △강정규⁵⁸ △강정욱⁸³
△김기홍⁷⁵ △김택근⁵⁸ △김화춘⁵⁹
△박동귀⁵⁵ △오인식⁵⁶ △이경모⁷⁶
△이규승⁵⁸ △이상선⁸¹ △이영애⁵⁸
△임성균⁵⁹ △조달문⁶⁸ △하국봉⁸¹
△한건웅⁶¹

◆대학원 △심재영⁷⁸ △이화련⁸⁷
△조석준⁵⁷

◆경대원 △권영천⁶⁶ △이해동⁶⁷
△장만기⁶⁶

◆MBA △박철형¹⁰

◆국대원 △고영진⁰⁸ △장영진¹¹
△정사량⁰⁵

◆보대원 △김상욱⁸⁷ △박주홍⁸⁶
△이경연⁷¹ △이양재⁶¹ △하태경⁰⁸
△황금복⁷⁶

◆행대원 △강남구⁰⁸ △강성원⁶⁸
△강인준⁷¹ △김한근⁷¹ △신지현⁰⁸
△심운수⁸¹ △이종련⁶⁶

◆AMP △고정웅⁴⁰ △김석중⁶³
△김용범³⁰ △김우전⁷ △김종길²⁹
△김중성³⁹ △남정후¹⁸ △민상기²⁵
△박종구²¹ △백석기²⁷ △서준희⁶³
△우상우¹⁸ △윤동균⁴⁶ △이기선⁷³
△이병달²⁸ △이상갑²⁵ △이성철¹²
△이종철¹⁰ △임창건⁵⁹ △전동근¹¹
△정재성⁷ △조석제⁶² △조용선³⁶
△최병면⁴¹ △최용묵⁵³ △최종원¹⁶

◆AIP △김영선² △김윤필³²
△김종인⁵⁰ △박영욱¹⁵ △박종우⁶
△염성도⁵⁰ △오 현⁵ △이창욱⁵⁰
△조원동⁴⁹ △최재영¹¹

◆ACAD △강경보²⁰ △김길원³⁵

△김덕영¹⁸ △김부근³¹ △김인종⁵⁴
△김정윤⁶⁹ △김진준⁷⁰ △김행복²⁷
△김호연¹¹ △박찬국⁵⁴ △유병국³⁰
△이관영² △이윤희¹⁸ △이은홍⁴⁸
△이종원⁴⁷ △전해성³³ △채명기⁶⁶

◆ABP △유향기³⁹

◆SGS △신영화²⁹ △옥병덕²⁴
△원창희⁸ △이창복¹³ △황정식²

◆HPM △박삼규²³ △정동윤⁹
△한상부³⁰ △한상섭¹² △한영규¹⁷

◆AMPP △고영수¹⁰

◆AIC △민홍식²³ △박병휴¹⁰

△정상근¹

◆AFB △강근택¹³ △김수찬¹³
△김장만¹³ △박만영¹¹ △손외수¹³
△유석준¹³ △이상해¹³ △이선화¹³
△조준상¹⁰ △홍영표¹³

◆AMPFRI △윤숙현³⁰

◆ACMP △김창종² △박병수¹⁰
△박진순¹⁰ △송주창¹⁰ △이경원¹⁰
△임병규¹⁰ △하용환⁵

◆GLP △강원형¹⁴ △김태형⁹
△송병원²⁰ △이철균²⁶ △인태관²⁷
△임종호¹¹ △최만중¹²

◆ALP △고형봉¹⁰ △노연길¹⁰
△정기환⁶

◆SPARC △정무신⁵

◆AFP △권희영¹³ △김건섭¹³
△박영표¹³ △서영욱¹³ △송인화²
△홍재성⁵ △황상숙¹³

◆ASP △고진웅⁴ △염조일¹⁵
△이찬근²³

◆IFP △김병구⁴ △손성기⁶

◆ABKI △백인기⁴ △진태화¹

◆KFL △김텃골¹¹ △이미애¹¹
△이병호¹⁶ △이은자¹⁶

2014년 3·4월	
연 회 비	160,860,100
평생회비	113,670,000
입 회 비	1,290,000
계	275,820,000
2014년 누계	544,370,100

바름 다름 아름

가들은 바르게, 기술은 다르게, 사람을 아름답게

‘바름 다름 아름’을 실천하는 코스맥스 R&I 센터 연구원들입니다.

코스맥스 R&I 센터는 코스맥스의 남다른 기술과 품질이 태어나는 곳.

코스맥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의 파트너들은 먼저 코스맥스 R&I 센터를 보고 놀랍니다.



코스맥스 R&I 센터가
스킨케어의 신기술을 소개합니다.

ISLCE™

코스맥스 R&I 센터가 일반 에멀전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고효능 스킨케어 소재, 세라미이드와 글래스테를 들을 멀티 라멜라 구조의 액정 에멀전으로 안정시킨 생체 모방형 스킨케어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ISLCE™ : in situ Liquid Crystal Emulsion

ISLCE™은 생체를 모사한 피부친화형 스킨케어 신기술입니다.
스킨케어의 신기술, 코스맥스 ISLCE™은 액정 에멀전 특유의 피부 친화 효과, 피부 침투 효과와 멀티 라멜라 구조 특유 효능인 피부 밀착력이 탁월합니다.
ISLCE™은 피부 보습 성분 전달 효과가 탁월합니다. 피부 보습 지속 효과가 탁월합니다.
탁월한 피부 보습 성분, 판토텐산은, 일반 에멀전에서 보다 액정 에멀전에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피부 보습 지속 효과도, 일반 에멀전은 액정 에멀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ISLCE™은 효능 물질의 안정화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에멀전에서는 안정화가 어려운 레티놀, 세라미이드, 글래스테를 등 고효능 스킨케어 소재들을 멀티 라멜라 구조로 탁월하게 안정화시켰습니다.



코스맥스 선정, 국내 상장 1700개 기업 중 한국을 대표하는 200 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월드클래스 300 기업
국민은행 선정, 히트 스타 500 기업

코스맥스, 코스맥스 차이나, 광저우 코스맥스 화장품 유통공사,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코스맥스 U.S.A.
■ 본사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로 2길 46 Tel. 031-369-0300 Fax.031-353-5559
■ R&I Cente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7층 Tel. 031-789-3100 Fax.031-789-3199
■ 마케팅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4층 Tel. 031-789-3000 Fax.031-789-3099



소비자 중심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엄마의 지혜

지혜로운 엄마 되는 거요?
아침에는 청호 정수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요
가려워하는 우리 아이 연수기로 목욕시켜주고
덜 마른 교복 입힐까 봐 제습기 틀어놓고
수험생 변비 걱정은 비데로 속 시원하게 씻어주고
기침으로 고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청정기도 준비~
아이에게 친구 같은 엄마
남편에게 애인 같은 아내
화장품도 청호만 쓰는데
이젠 딸애가 같이 쓰세요~호호



엄마의 사랑처럼
세상 단 하나뿐인 기술을 생각합니다

엄마의 지혜 - CHUNGHO 청호나이스

플래너 모집

02) 3019-5363, 5332, 5331



이과수 얼음정수기
외인셀러



이과수 폭포청정기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이과수 연수기
미러



이과수 제습기
CDF-012



이과수 캐변기
스트라이크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



이과수 얼음정수기
티니

기술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
3년 연속 수상



한국산업의 고령화도
5년 1위



대한민국 서비스품질도
8년 수상



한국에서 가장
추천받는 기업상



글로벌 경쟁력
8년 연속 수상



글로벌 브랜드 영향력 1위
6년 연속 인증



대한민국명품 1위
4년 연속 선정



한국소비자충만도 1위
6년 연속 선정



글로벌 고객만족도 1위
5년 연속



가장혁신적인
대형상 수상



국내 최초 미국수출
공인수출전문기업

고객의 중심에 서서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하고자 노력합니다.

21세기 지붕자재 선두기업-(주)제일함석

수년간의 Know-How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을 모아 최고의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붕자재 분야의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의 약속!

철저한 연구개발과 품질경영, 축적된 기술, 완벽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약속합니다.



• 사무실전경

장인정신과 책임의식으로 생산되는 제일함석의 모든 제품은
 철저한 연구개발과 축적된 기술로 무한 경쟁 시대에 도전합니다.
 제일함석은 지붕자재 종합 메카로서 완제품의 생산까지
 완전 자동화된 설비로 우수한 품질, 정확한 납기,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 시켜 드리며
 언제나 최상의 품질로 다가 가겠습니다.



(주)제일함석

336-831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75-80 www.jeil-steel.com
 TEL. 041-537-5000~91 FAX. 041-537-5099